

**NOROO**

NOROO

Spring. 2019



Spring. 2019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세계화 4.0

**NOROO** Quarterly Magazine | 2019년 봄 50호

**NOROO**

# Color and Globalization



## Special Theme

###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세계화 4.0

#### 06 Column

지구 위 네 번째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 12 Information

격변의 세계화 4.0  
포용하고 상상하라

## Culture Gallery

#### 16 Finance

P2P, 높은 수익을 뒤의 위험을 보라

#### 18 Office

바로 당신도 꼴대일 수 있다

#### 20 Taste

찻잔에 꽃을 담다

#### 22 Travel

푸른 공기 가득 식물원 산책

## NOROO People

#### 26 Focus on NOROO I

공감에서 동행, 그리고 이제 도약이다  
2019 (주)노루페인트 VIP 특약점 세미나

#### 30 Focus on NOROO II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  
하우홈 인테리어로 새롭게

#### 34 High Five

더 안전한 공간, 노루페인트가 도와드립니다  
(주)노루페인트 건축기술팀 안윤수 차장

#### 38 Family Time

마음을 쓰고 글을 그리다  
(주)노루홀딩스 부속실 최 올리비아 주임과  
친구 김 이고르 씨

#### 42 Special Store

국산화로 새로운 시장을 개발하다  
대구 (주)제이디켐

#### 46 News Briefing

(주)노루홀딩스  
미세먼지 속 효과적인 청소법

#### 50 1 Minute Guide

미세먼지 속 효과적인 청소법

#### 51 Behind Cut

(주)더기반 홍보디자인팀 김택수 과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1 H스퀘어 S동 712호  
T:031-785-9083

## NOROO 그룹 사보 담당자

(주)노루홀딩스 인사지원팀 조용걸 과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42 아크플레이스 A동 10층  
T:02-2191-7724

(주)노루페인트 마케팅전략팀 지남철 차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51  
T:031-467-6128

(주)노루오토코팅 경영기획팀 안세현 대리  
경기도 화성시 정안면 정안공단 7길 28  
T:031-8059-9533

(주)노루비케미칼 경영지원팀 이용재 대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1로 111  
T:041-620-6207

(주)노루코일코팅 마케팅전략팀 지남철 차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51  
T:031-467-6128

(주)노루케미칼 경영지원팀 현준 대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 285번길 7  
T:031-599-7276

(주)노루알앤씨 경영지원팀 현준 대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 285번길 8-1  
T:031-599-72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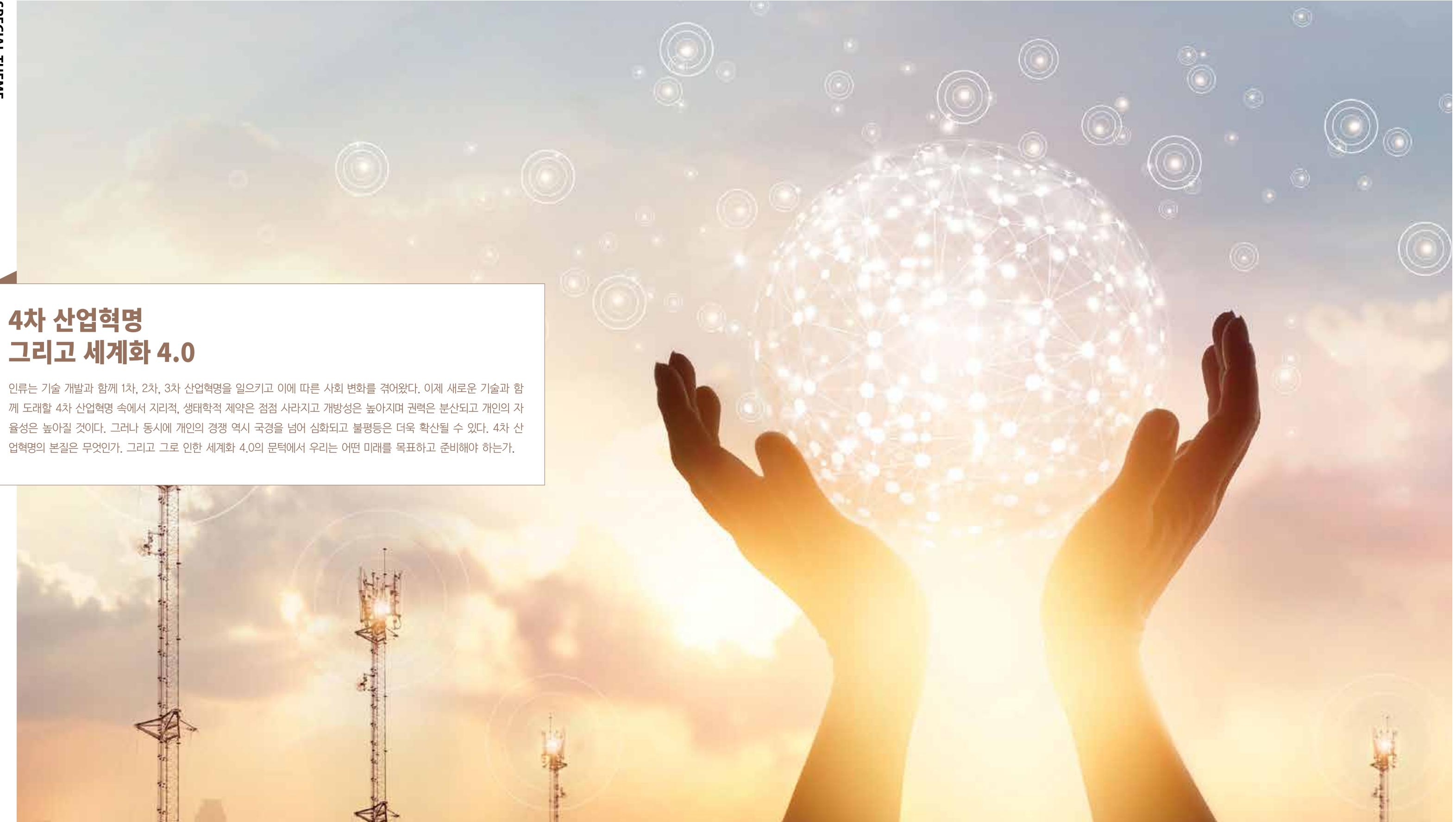
(주)노루로지넷 경영지원팀 전희경 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51  
T:031-467-6363

(주)칼라메이트(주) 지원팀 이선화 주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51  
T:031-467-6607

(주)아이피케이 총무팀 최대섭 차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국민연금 부산회관 17층)  
T:051-580-8363

(주)노루기반 인사총무팀 정선훈 대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5-14 4층  
T:031-607-5560

(주)더기반 홍보디자인팀 김택수 과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1 H스퀘어 S동 712호  
T:031-785-9083



##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세계화 4.0

인류는 기술 개발과 함께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이에 따른 사회 변화를 겪어왔다. 이제 새로운 기술과 함께 도래할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지리적, 생태학적 제약은 점점 사라지고 개방성은 높아지며 권력은 분산되고 개인의 자율성은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개인의 경쟁 역시 국경을 넘어 심화되고 불평등은 더욱 확산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로 인한 세계화 4.0의 문턱에서 우리는 어떤 미래를 목표하고 준비해야 하는가.

# 지구 위 네 번째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얼마 전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공계를 전공하고 사업을 하거나 의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친구들이었으나 놀랍게도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을 제대로 설명하는 친구는 없었다. 다들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최근 회자되는 기술을 이야기하며 이런 기술이 들어가면 4차 산업혁명이지 않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그 기술들을 정확히 아는 것도 아니었다. 우리나라의 유명 오피니언들도 4차 산업혁명을 어렵잖이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라는 것에는 모두 동의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정부, 기업 모두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략을 언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이 도대체 뭐야?”라고 용기 있게 말하기는 쉽지 않다. 모두가 아는 것 같지만 정작 아무도 모른다는 표현이 과하지 않다.

글 · 강명구

## 4차 산업혁명의 정의, 그 모호함

이렇게 된 것이 사람들의 무지 탓일까? 딱히 그렇지도 않다. 예를 들어 한국정보통신학회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내린 정의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다. 어려운 기술을 나열한 후 이를 이 용합되어 혁신적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식이다. 4차 산업혁명은 ‘혁명’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 만큼 지나간 역사와 구분되는 큰 변화를 의미하는데 위와 같은 정의는 이를 설명하지 않는다. 혁신적 변화의 내용은 각자의 상상에 맡기고 변화의 도구인 기술만 나열하는 부족한 정의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설명이 거의 이런 식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쉽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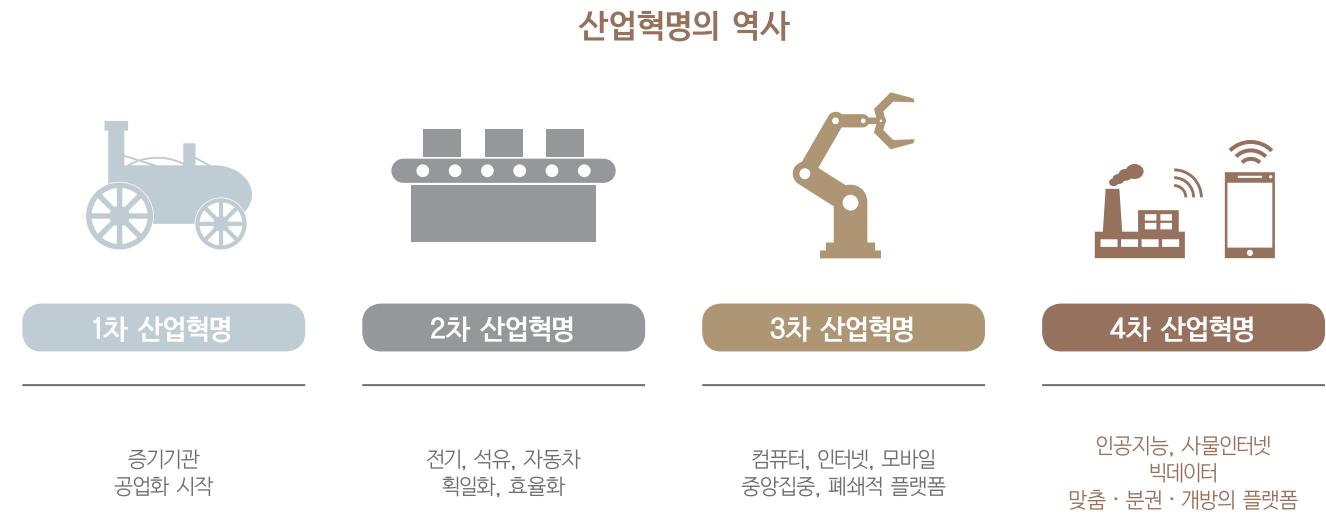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 축발한 1차 산업혁명을 예로 들자. 1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자급자족의 농업 사회가 소품종 대량 생산의 공업 사회로 바뀐 것이다. 증기기관은 다른 많은 기술

과 함께 사회 변화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증기기관을 1차 산업혁명의 정의로 이해하면 안되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도 기술이 아닌 변화의 방향으로 이해해야 한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기술은 변화의 도구일 뿐이다. 이제 개념 이해를 시작해 보자.

## 산업혁명의 역사와 그림자

4차 산업혁명이라 하면 이미 3차 산업혁명까지 지나갔다는 의미다. 산업혁명의 역사를 이해해야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이유와 개념을 알 수 있다.

1차 산업혁명은 1700년대 중반에 일어났다. 앞서 언급한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 시발점이다. 수력, 풍력 등 자연의 힘만 동력으로 사용하던 인간이 원할 때 기계를 돌릴 수 있는 인공동력을 가진 것이다. 물을 얻을 수 있는 강가에 많은 공장이 들어서며 공업화와 사회 변화가 시작되었다. 2차 산업혁명은 1900년 전후에 일어났다. 전기, 석유와 같은 새로운 에너지원



과 함께 과학과 공학이 급속도로 발전한 시기이다. 포드의 컨베이어 벨트 생산을 필두로 효율적 생산 시스템이 확산되었다. 2차 산업혁명은 자본주의와 결합하여 대량생산, 대량소비 현대 사회 구조를 구축했다. 오늘날 우리를 만든 진정한 산업혁명은 2차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 있다.

3차 산업혁명은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를 일컫는다. 컴퓨터, 인터넷, 모바일 기술이 순차적으로 등장하며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켰다. 세계가 하나로 묶이면서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구조가 강화되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2차 산업혁명이 만든 사회 구조를 강화했을 뿐 이전과 다른 변화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3차 산업혁명은 없었고 지금까지 2차 산업혁명이 유지된다고 보는 학자도 있다. 2차, 3차 산업혁명의 동일한 패러다임은 100여 년 이상 세상을 지배했다.

그런데 2012년부터 그 질서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4차 산업혁명은 이 변화를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이다. 그 변화는 지나간 산업혁명의 그림자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

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나간 산업혁명은 소품종 대량생산을 통해 풍요를 선물했다. 무조건 효율을 높이는 것이 먼저였다. 사람들의 업무 영역은 좁아지며 분업화되었고 소수가 정보를 독점하며 권력을 강화했다. 이른바 피라미드식 구조다. 민주적으로 모두가 목소리를 내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회사, 총장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등 전 분야에 중앙집중식 효율화가 진행되었다. 기업 간의 관계도 유사하다. 이른바 플랫폼 생태계로, 하나의 기업이 지배적 위치에서 생태계의 방향을 결정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구글의 안드로이드 플랫폼이다. 스마트폰 생태계의 꼭대기에 있는 안드로이드 버전이 바뀌면 스마트폰 제조업체, 통신사, 앱 개발업체 등 관련 생태계 모든 업체가 영향을 받는다. 구글이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익을 독점한다.

이러한 산업혁명의 그림자는 점점 명확해졌다. 우선 소품종 대량생산에 따른 사회의 획일화가 심화되었다. 시간이 갈수록



## INDUSTRY 4.0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소수에서 다수로 권력이 옮겨가는 방향성이다.



민족, 세대의 정체성을 약화되며 동질화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여기에 일조한다. 이러한 획일화는 인간 본성을 거스른다. 아울러 소수가 권력을 갖고 다수는 따라가는 중앙집중적 구조의 심화도 인간의 주체성을 좌절시킨다. 권력을 가진 소수가 이익을 독점하기 때문에 양극화는 심해진다. 지배 기업이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생태계 내 참여자나 다른 플랫폼과 권력을 나누지 않는 폐쇄적 운영을 하면서 내부 정보를 통제하고 임의로 활용하는 빅브라더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어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이 갖고 있는 고객 정보를 제대로 쓰는지 외부인은 감시할 수 없다. 내부자만 폐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최근 유럽에서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만들어 플랫폼 중심 기업 규제를 시작한 이유이기도 하다. 2008년 경제 위기와 2012년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를 거치면서 대중은 중앙집중적 권력의 위험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블록체인과 같은 중앙집중에 대항하는 기술이 등장했

다. 기존에 있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의 기술과 함께 분권적 운영을 뒷받침하는 기술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대중이 원하고 기술이 뒷받침되면서 구글, 페이스북 등 기존 산업 혁명 강자에 대항하려는 새로운 도전자가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구축된 질서에 대한 도전이다. 그래서 이를 4차 산업 혁명이라 명명한다.

### 4차 산업혁명의 방향성

2012년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전략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소수에서 다수로 권력이 옮겨가는 방향성이다. 소품종 대량생산의 획일화, 페이스북 정보 유출 사건이 대표하는 플랫폼 정보 독점 및 폐쇄적 운영과 같은 기존 산업혁명의 그림자를 극복하고자 하는 변화다. 그래서 변화의 방향성은 맞춤, 분권, 개방으로 표현할 수 있다. 현재 기업이 추구하는 가정(스마트홈), 직장(스마트팩토리), 도시(스마트시티)의 비전을 보면 이것을 쉽게 이

해할 수 있다. 스마트홈의 비전은 주인 맞춤 환경 제공이다. 온도, 습도, 조도 등의 자동 제어와 다양한 센서를 통한 건강관리도 포함된다. 이를 위해 집 안의 모든 기기를 연결하고 하나의 인공지능으로 관리하는 것을 지향한다. 최근 대부분의 가전제품은 사물인터넷 기술의 연결기능을 제공하며 삼성, LG 등 주요 기업 역시 스마트홈을 위한 인공지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스마트홈 구현은 요원하다. 각 기업이 각자의 생태계만 꾸리려는 폐쇄성 때문이다. 집 안의 기기들이 모두 한 업체로 구성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인공지능으로 모든 환경을 조절하기가 어렵다. 진정한 스마트홈을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방향성에 따른 분권과 개방이 필수다. 주요 업체들은 시대정신에 부응해 개방을 선언하고 경쟁사도 자사 기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언에서 운영까지는 넘을 산이 많지만 분권과 개방의 길만이 주인 맞춤 환경을 구현할 수 있다.

스마트팩토리는 지금까지 컴퓨터와 로봇이 인력을 대체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하지만 독일 인더스트리 4.0 전략부터 다른 품종 소량생산을 위한 공장으로 목표가 명확해지고 있다. 지금까지 소품종 대량생산 공장이 일정한 조건 하에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경쟁력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 공장은 다양한 품종의 맞춤 제품을 유연하게 생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생산 원가는 변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이를 위해서는 원재료, 공정, 설비, 사람이 모두 인공지능에 연결되어 변화에 자동으로 대응해야 한다. 때문에 인건비가 중요했던 기존 공장과 달리 소프트웨어 파워가 중요해진다. 최근 선진국이 제조업을 다시 자국으로 유치하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펴는 것은 이와 같은 방향성에 기인한다. 인건비는 불리해도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있어 다른 품종 소량생산 공장에서 중국, 인도 등을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장을 구성하는 다양한 센서, 설비 등은 서로 연동되고 한 몸처럼 제어되어야 한다. 역시 분권과 개방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통해 다른 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해져 소비자 맞춤 제품과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다.



대중의 욕구에 맞게  
맞춤과 분권, 개방을 지향하는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은  
가정, 직장, 도시의 미래 개념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처럼 대중의 욕구에 맞게 맞춤과 분권, 개방을 지향하는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은 가정, 직장, 도시의 미래 개념을 변화시킬 것이다. 블록체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술이 이를 뒷받침한다. 물론 소프트웨어 기술 자체로 충분치는 않다. 하드웨어에서 정보(빅데이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은 정확한 정보 위에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하드웨어에서부터 인공지능을 거쳐 다양한 서비스까지 안전하게 연결하는 기술이 핵심이다. 하드웨어 기술을 가진 한국이 소프트웨어 기술만 결합하면 유리한 조건이라 하겠다.

#### 우리의 자세와 세계화 4.0

지금까지 변화의 방향을 통해 개념을 이해했다. 4차 산업혁명 전략은 이 방향에 맞춰 만들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달을 가리킬 때 달, 즉 방향은 못 보고 손가락, 즉 기술만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부터는 기술이 아닌 맞춤, 분권, 개방이라는 변

화의 방향성, 달을 볼 때다. 그래야 제대로 된 스마트홈,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의 미래 방향을 선도하며 개인과 조직, 국가적으로 성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마지막 사족으로 세계화 4.0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확산된 것은 2016년 세계경제포럼 때부터다. 의장인 클라우스 슈밥이 화두를 던졌고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2019년 세계경제포럼은 세계화 4.0(Globalization 4.0)이라는 개념을 등장시켰다. 세계화는 국경을 넘는 재화, 서비스, 사람의 이동 현상을 일컫는 용어이다. 학자에 따라 역사와 시기, 정의에 차이가 있지만 토마스 프리드먼은 역사상 세 차례 세계화가 있었다고 정의했다.

1400년 대부터 1800년대까지가 세계화 1.0, 국가의 세계화 시기이다. 고립되었던 국가들이 서로 교류의 지평을 넓혔던 시기라 볼 수 있다. 1800년대 중반부터 1990년경까지는 세계화 2.0이라고 했다. 산업혁명으로 대량생산된 재화가 국경을 넘어 소비되는 시기를 지칭한다. 그리고 1990년부터 지금까지

는 세계화 3.0이라고 정의했다. 인터넷, 모바일이 발달하면서 재화뿐 아니라 사람도 세계화에 영향을 받은 시기다. 인건비가 싼 국가에 공장을 내보냄으로써 이른바 선진국의 블루칼라가 고통을 받았다.

지금 벌어지는 세계화 4.0은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 같은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로 화이트칼라가 영향 받기 시작한 시기로 정의된다. 국경을 넘지 않고 자기 집에서 다른 나라에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화이트칼라도 블루칼라처럼 글로벌 경쟁에 노출되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곳의 일을 할 기회가 열리고, 맞춤화된 서비스도 늘게 되지만 국가와 기업의 책임이 희미해지면서 개인에 대한 보호의 태도가 느슨해지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방향성인 분권 강화의 반작용이라 할 수 있다. 세계화 3.0 때문에 피해를 본 블루칼라의 선택으로 브렉시트나 트럼프와 같은 강성 지도자의 등장 등 위기가 초래되었는데 여기에 화이트칼라까지 가세하면 위협이 커질 것으로 예측한 세계경제포럼은 이에 대한 빠른 대

책 마련을 촉구하며 민관 협력체제(Governance)의 화두를 던졌다. 이제 세계화 4.0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가는 강력한 힘을 내세우며 이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과거의 모습을 고수하기보다는 분권에 따라 더욱 확대되고 중요해질 민의 권력을 받아들이고 연대해야 한다. 맞춤과 분권, 개방이라는 4차 산업혁명의 방향성을 명확히 이해하면 세계화 4.0에 대한 바른 대책과 기술적 대안도 마련할 수 있다.

#### 글 · 강명구

서울대 공학 박사, 미국 국립표준·기술 연구소(NIST) 방문연구원을 거쳐 삼성전자에 입사, 신사업 부문 임원이 되기까지 20년간 최첨단 기술에 몸담았다. 현재 연세대에서 4차 산업혁명과 사물인터넷 관련 연구와 기업 컨설팅을 수행 중이며 KCTNS 부사장으로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사업을 맡고 있다. 기술이 발전하지만 오히려 대중은 이로부터 분리되는 현실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4차 산업혁명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있다. kmkoo77@gmail.com

## 격변의 세계화 4.0 포용하고 상상하라

매년 1~2월, 스위스의 고급 휴양지 다보스에는 세계의 저명한 기업인, 정치인, 경제학자, 저술인 등이 모여든다.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클라우스 슈밥에 의해 민간기구로 출발한 이 포럼에서는 세계 경제를 중심으로 정치, 인권, 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발표 및 토론이 벌어지고 그 내용은 전세계로 확산된다. 4차 산업 혁명도 다보스 포럼이 2016년 의제로 다루면서 세계적 이슈가 되었다. 올해 다보스 포럼의 의제는 '세계화 4.0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 구조 만들기'였다. 4차 산업혁명이 만들어낼 변화 속에서 인류의 삶을 지속시킬 세계화 모델은 무엇일까.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화 4.0을 희망으로 이끌 길을 가늠해 본다.



**"세계화는 기술과 사상, 사람, 상품의 움직임에 의해 움직이는 현상이다."**

- 클라우스 슈밥 (다보스 포럼 회장)

"글로벌라이제이션 즉 세계화는 기술과 사상, 사람, 상품의 움직임이 이끄는 현상이고 글로벌리즘은 신자유주의적 세계 질서를 국익보다 우선시하려는 이념을 말한다. 우리가 세계화된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우리 모두의 정책이 '글로벌리스트'를 지향해야 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크다."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올해 포럼에서 이와 같이 말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협력의 접근법을 제안했다. 그는 지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포퓰리즘이 세계화와 글로벌리즘 사이의 혼란을 초래했다면서 민주주의의 지속을 위해서는 보호무역주의와 민족주의 정치로 경제적 폐쇄성을 쌓기보다는 새롭고도 단단한 사회적 연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기술의 변화, 시장의 개방과 경쟁 속에서 발생하는 승자와 패자 외에도 국가 차원의 불평등에서 나타나는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와 국제 사회는 더욱 넓은 포용력과 더 높은 상상력이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세계화 4.0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화와 매우 다를 것이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대중은 이를 거의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

- 리처드 볼드윈 (제네바 국제경제대학원 교수)

"디지털 기술은 서비스 분야의 임금 장벽을 허물고 국제 프리랜서 플랫폼, 첨단 통신 기술, 기계 번역은 새로운 형태의 세계화를 만들고 있다. 선진국 내 수억 명의 서비스 부문과 전문직 종사자들은 사상 처음으로 세계화의 시험장에 놓일 것이다. 여기에 AI가 주도하는 자동화 서비스도 많은 인력을 대체할 것이다." 리처드 볼드윈 교수는 블루칼라에서 화이트칼라에 이르는 대부분의 노동자가 세계화를 맞닥뜨리는 이러한 상황을 '글로보틱스 격변 (Globotics Upheaval)으로 표현한다. 그는 "모든 위대한 변혁은 기회와 비극을 장악하는 이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고 말하며 "우리가 잘 준비하고, 정부가 변화의 속도를 조절해 적응을 돋는다면 미래의 세계화는 우리를 더 나은 세계로 이끌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지난 20년 동안 세계화는 전 세계 6만 개의 회사에 의해 통제되었다. 이제 그것이 6천 만 개의 기업으로 확대된다고 상상해 보자."**

- 마윈 (알리바바 CEO)

마윈은 다보스 포럼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우리는 세계화를 믿지만 많은 이들은 그렇지 않다. 세계화는 포괄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며 많은 자유무역지대의 문제점이 대기업만을 위해 설계된 것임을 지적했다. 그는 "개발도상국, 젊은이, 소규모 기업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을 위한 자유무역지대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무역기구, 다보스 포럼과 공동으로 이니셔티브를 구성하여 르완다의 농부가 중국에 커피를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세계무역플랫폼 eWTP를 구축한 바 있다. 마윈은 이를 세계화 4.0의 포괄성을 높일 선구적 방법론으로 예시했다.

**"문화의 세계화는 더이상 미국화가 아니다. 방탄소년단은 좀더 다양한 세계화를 보여주고 있다."**

- 피터 배넘 (칼럼니스트)

2018년 12월 다보스 포럼의 웹사이트에 "한국의 보이밴드가 세계화 4.0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것(Here's What a Korean boy band can teach us about globalization 4.0)"이라는 칼럼이 게재되었

다. 칼럼니스트이자 작가인 피터 배넘은 이 글을 통해 "싸이와 방탄소년단 등 한국의 가수와 밴드가 세계 최고의 대중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은 결국 다양한 세계화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2000년대까지 영화, 음악, 대부분의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 플랫폼, 식음료에 이르기까지 문화의 세계화는 미국으로 편향되어 왔고 시장의 개방과 인터넷은 미국 문화의 확산을 가속화했다. 이 현상은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반면 지역 문화의 독특성을 상실시킨다. 세계화 초기인 16세기 이후로 전 세계의 구어 수는 1/2 가량 감소했고 나머지 언어 중 절반도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피터 배넘은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 중 10위 안에도 들지 않는 한국어로 노래함에도 불구하고 음악적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노래와 영상을 자발적으로 자국어로 번역하여 온라인에 전파한 전 세계 팬들로부터 '상향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주목한다. 결국, 문화는 계속 교차하고 정화되며 나아갈 것이고 방탄소년단이 보여주듯 다양한 세계화의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고 말이다.

## 4차 산업혁명 속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과 세계화 4.0의 전망을 두고 세계 각국은 분석과 전략, 실행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제조업 혁신에서 시작해 맞춤, 분권, 개방이라는 근본적 변화를 이뤄낼 것이다. 변화의 흐름에 뛰어드는 각국의 준비는 치열하다.



미국



독일

강한 벤처 창업 시스템 속에서 미래 기술을 사업화하고 선점한 미국은 3차 산업혁명의 기술 혁신을 주도하여 다양한 분야의 플랫폼을 지배해 왔다. 그리고 이제 대량 맞춤과 같은 제조업 혁신에 중점을 두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려 한다. 미국은 2011~12년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 정책을 마련, 2017년까지 3D 프린팅, 센서, 검사 장비, 바이오 제조 등 첨단 제조업 혁신연구소를 전국 곳곳에 설립했다. 많은 미국 기업은 공장을 다시 자국으로 옮기는 리쇼어링 전략에 나섰다. 플랫폼 독점 지위에 제조업까지 더해진다면 미국의 번영은 지속되겠지만 그간 제조업으로 버틴 다른 나라는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다.<sup>1</sup>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강소 기업을 보유했으나 글로벌 플랫폼 경쟁에서 뒤처졌던 독일은 2010년 첨단 기술 전략(HTS: High Tech Strategy) 2020을 발표한다. 여기서 스스로 최적화, 조직화, 지능화하며 자가 진단까지 하는 스마트 공장으로 유연한 맞춤형 생산을 추구하는 인더스트리 4.0 개념이 구체화되면서 이후 2016년 세계경제포럼의 4차 산업혁명이 나오게 된 것이다. 독일은 플랫폼 주도권을 가진 미국 기업에 맞서기 위해 인더스트리 4.0과 함께 자국 내 항공, 통신, 보험, 자동차 등 기업 공동의 플랫폼을 구축하려 노력 중이다. 반도체 등 기반 부품 기술은 부족하나 소프트웨어와 비전 제시에서 독일은 강점을 지니고 있다.<sup>2</sup>



중국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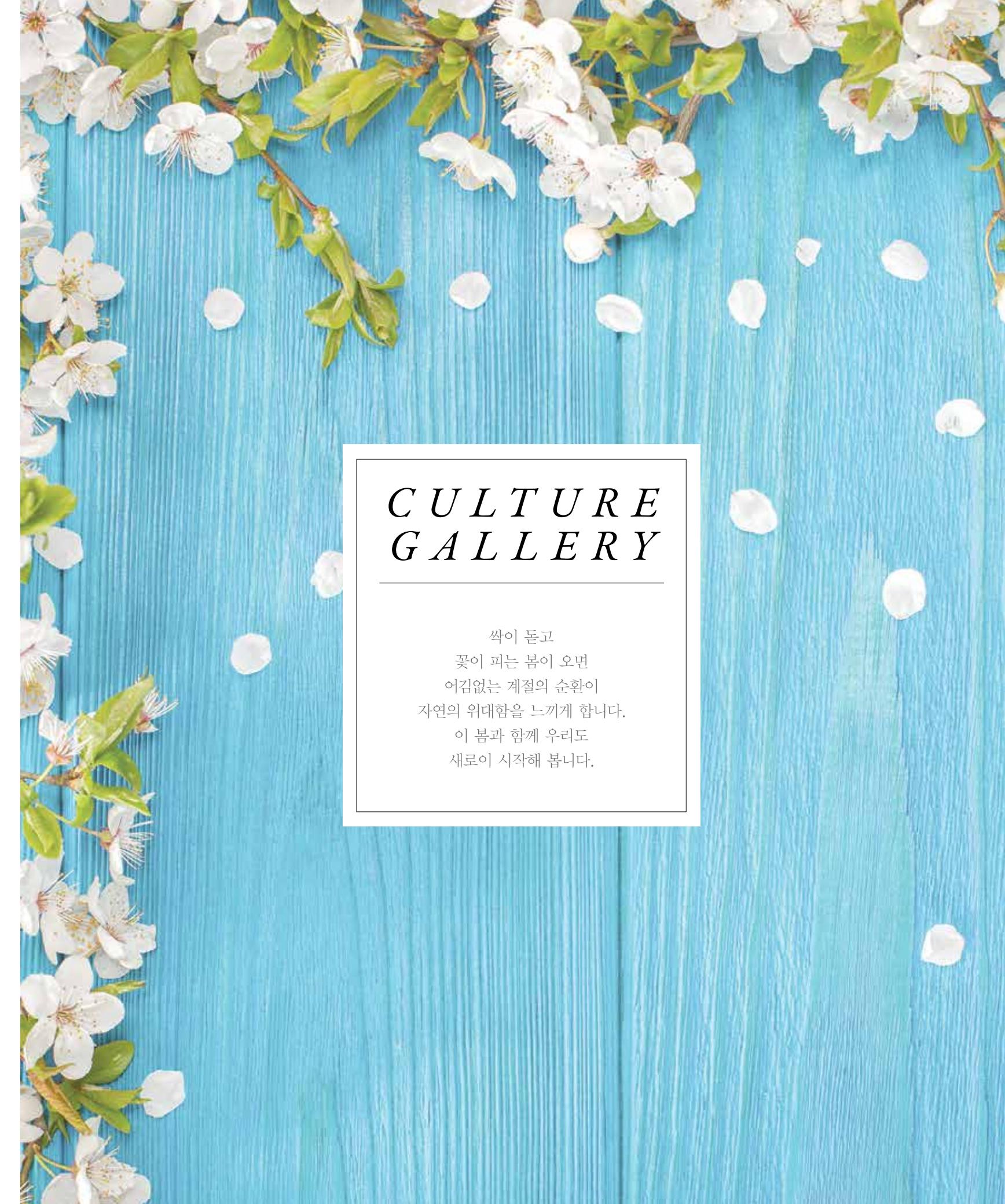
중국의 성장 속도는 점차 주춤하고 있다. 선진국의 리쇼어링 전략에 대응해 중국은 전체 제조업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하여 '제조대국'에서 '제조강국'으로 변신하겠다는 메이드인차이나 2025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효율적이고 통합된 산업을 만들고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겠다는 전략 목표 아래 2025년까지 40개의 제조 혁신 센터를 만들 계획이다. 또한 중국 기술이 국제 표준에 채택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sup>3</sup>

2016년, 일본은 새로운 시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문명적 확장판인 소사이어티 5.0을 제시한다. 저출산, 고령화, 인력 부족의 사회 문제를 인공지능과 센서, 네트워크 인프라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술로 해결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경제 발전으로 연결하겠다는 목표다. 정부의 플랫폼 위에 다양한 기술을 가진 기업이 연결된다면 로봇과 센서 디바이스 등에서 최고 수준을 자닌 일본의 저력을 다시 세계를 향할 수 있다.

<sup>1,2,3.</sup>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강명구, 키출판사, 2018) 참고

## CULTURE GALLERY

싹이 돋고  
꽃이 피는 봄이 오면  
어김없는 계절의 순환이  
자연의 위대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 봄과 함께 우리도  
새로이 시작해 봅니다.



# P2P, 높은 수익율 뒤의 위험을 보라

P2P 대출(Peer-to-peer lending)은 대출 신청인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대출받고 투자자는 약속한 기간 동안 이자를 받는 대출 서비스로 일종의 크라우드 펀딩 개념이다. 대출업체가 적정 금리를 결정하여 대출 신청들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리면 투자자들은 돈을 빌려줄 사람과, 얼마를 빌려줄 것인지를 정해 투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400억 원(P2P 업체 수 27개)에 불과했던 P2P 대출액이 2018년 9월에는 4조 3천억 원(P2P 업체 수 193개)으로 급증할 만큼 성장했다. P2P 대출 시장이 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글 · 홍성민

## 온라인 플랫폼과 SNS의 발전, 저금리 환경 속 높은 수익에 눈길

P2P 투자 급증의 배경에는 온라인 플랫폼과 SNS의 발전, 그리고 저금리가 지속되는 경제 상황이 있다. 과거 개인간 돈 거래는 신원을 확인한 뒤 담보를 받거나 신용으로 돈을 빌려주고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으면 소송을 하거나 담보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리스크가 큰 데다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 법적 지식도 있어야 해서 개인이 수익을 얻기 위해 다른 개인에게 투자하기는 어려운 환경이었다. 이런 역할을 대

신해 준 곳이 은행, 상호저축은행과 같은 제도권 금융기관들이다. 이들은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으면서 자금을 보증하고, 예금액을 모아 투자한다. 투자의 수익은 거의 금융회사에게 귀속되고, 고객은 정해진 이자만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인터넷과 모바일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소액의 투자자들이 모여 돈이 필요한 이에게 빌려준 후 원금과 이자를 투자금액에 따라 나누어 갖는 컨셉을 실현할 요건이 만들어졌다. 직접 만나지 않고도 다수가 정보를 공유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초기에는 개인간 돈을 빌려주는 형태의 거래(점두거래)가 주였지만 점차 전문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P2P 업체가 급증했다.

테라펀딩, 어니스트펀드, 투게더펀딩 등이 이러한 P2P 업체다 (한국P2P금융협회, 월 대출액 기준 상위 순위, 2018년 7월 기준). P2P 업체의 전문인력은 투자 대상을 찾아 심사한 뒤 투자자에게 선보인다. P2P 업체는 대출 대행 수수료와 신용등급 확인 및 대출 심사 수수료로 운영하고 투자의 수익은 투자자에게 돌려준다. 실제 최근 P2P 업체에서 투자자에게 제안하는 수익률은 10% 내외 수준으로, 예금금리 2%에 비하면 상당히 높아서 저금리 시대에 눈길을 끌고 있다. 그러나 고수익에는 반드시 위험이 따르는 법. P2P 투자 시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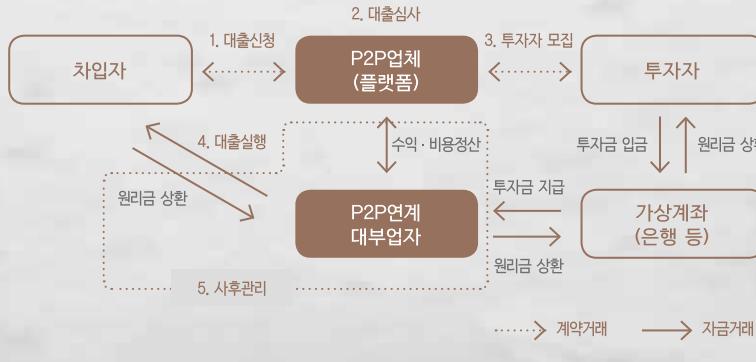


그림 : P2P 대출의 구조

## P2P 투자의 위험

P2P 업체를 통한 투자의 경우, 어디에 투자했는지, 담보는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업체가 제시하는 데로만 따르다 보면 정보의 크로스체크가 쉽지 않다. 마음만 먹으면 업체는 허위 투자 정보를 게시하거나, 대출 및 부실 현황을 조작할 수도 있다. 2018년 P2P 연계 대부업자 178개 사를 대상으로 대출 취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기 횡령 혐의가 포착된 회사가 20개였고, 횡령 액수와 피해자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를 유치하는 대가로 투자 금액의 일정 부분을 유치자에게 지급하면서 계속 재모집을 하여 앞선 투자자의 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적발된 업체도 있고, 연체율 및 부실률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담보가 없거나 가치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인 업체도 많았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투자가 검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P2P 투자는 실패해도 투자 자금을 돌려받을 법적 근거가 없는 등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 그나마 최근 정부가 P2P 대출에 대한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며 입법화에 나서고 있다. 법제화가 되면 제도권 금융산업의 일원이 되어 대출의 영업 방식과 규제가 좀 더 정교해질 것이라 기대다.

격에 대한 요건도 있으므로 미등록 기관에 비해서는 믿을 만하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http://fine.fss.or.kr>)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인적, 물적 설비가 상대적으로 큰 업체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P2P 업체 평균 임직원 수는 6.2명(1~64명)으로 많지 않으며, 특히 심사 인력 수도 적다. 따라서 P2P 업체가 어느 정도나 큰 회사인지, 평판은 어떤지를 꼼꼼하게 점검한 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하나, P2P 업체에서 공개하는 대주주가 믿을 만한 기업인지도 확인하자. 정부의 법제화를 기다리며 P2P에 대해 먼저 꼼꼼히 공부해 두는 것도 좋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P2P 투자는 수익이 높은 만큼 위험이 크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 위렌 버핏은 위험한 투자란 “모르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늘 강조했다. P2P가 위험한 이유는 어디에 어떻게 투자되는지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닐까? 투자자는 투자처는 물론 업체까지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 바로 당신도 꼰대일 수 있다

“우리 땐 안 그랬는데 요즘 신입들은 영~.”, “이렇게 하면 쉬운데 왜 그렇게 해?”라는 말이 자꾸 입에서 튀어 나오는가? 그렇다면 자신의 평판을 조심스레 알아보자. 꼰대라는 평을 듣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다. 과거에는 고리타분한 사고방식을 가진 아버지나 교사 등 나이 많은 남자를 가리키던 꼰대가 최근에는 자신의 방식을 타고나온다. 누구나 꼰대가 될 수 있는 요즘, 혹시 나도 꼰대인가? 꼰대가 될 위험성은 얼마나 될까? 스스로 진단해 보자.

## 꼰대 자가 테스트

1. 사람을 만나면 나이부터 확인하고, 나보다 어리면 반말한다.
2. 대체로 명령문으로 말한다.
3. 요즘 젊은이들은 노력을 하지 않고 세상 탓, 불평불만만 한다고 주장한다.
4. “00란 000인 거야.”식의 진리 명제를 자주 구사한다.
5. 버스나 지하철의 노약자석에 앉아있는 젊은이에게 “비켜라.”라고 말하고 폰 충동이 있다.
6. 후배의 장점이나 업적을 보면 자동반사적으로 그의 단점과 약점을 찾게 된다.
7. “내가 너만 했을 때” 얘기를 자주 한다.
8. 후배가 나보다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는 걸 보면 거슬린다.
9. 고위공직자나 대기업 간부, 유명 연예인 등 알만한 사람과의 개인적 인연을 자꾸 이야기하게 된다.
10. 커피나 담배를 알아서 대령하지 않거나 화식 자리에서 삼겹살을 굽지 않는 등  
기어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후배가 불쾌하다.
11. 낯선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 후배에게 제대로 일하는 법을 알려준다.
12. 자유롭게 의견을 얘기하라고 해놓고 나중에 보면 내가 먼저 답을 제시하고 있다.
13. 옷차림이나 인사 예절도 근무와 연관된 것으로 자작할 수 있다.
14. 내가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15. 연애사와 자녀 계획 같은 사생활의 영역도 인생 선배로서 답을 제시해줄 수 있다고 믿는다.
16. 화식이나 야유회에 개인 약속을 이유로 빠지는 사람을 이해하기 어렵다.
17. 내 의견에 반대한 후배는 두고두고 잊지 못한다.
18. 미주알고주알 스타일로 업무를 지시하거나 확인한다.
19. 아무리 둘러봐도 나보다 더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없다는 생각이 든다.
20. 아이들에게 배울 게 있다는 원론에는 동의하지만, 실제로 월 배워본 적은 없다. 배울 생각도 없다.

0~3개 : 축하합니다. 당신은 꼰대의 기미가 없는, 성숙한 어른입니다. | 4~7개 : 조심하십시오. 꼰대의 맹아가 썩트고 있습니다.  
8~15개 : 꼰대 경계경보 발령입니다. 자숙하십시오. | 16~20개 : 명백한 꼰대입니다. 철저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꼰대?  
꼰대!

## 구석기 벽화에도, 온라인 SNS에도 꼰대는 있다

알타미라 동굴 벽화에도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는 말이 쓰여 있었다고 한다. 버릇 없는 요즘 애들과 함께 그들을 타박하는 꼰대도 구석기 때부터 존재했다. 그러나 지금은 어른이나 선생이 아닌 주변의 모든 ‘갑질’하는 이들에게서 꼰대의 증상을 발견할 수 있다. 꼰대 바이러스라도 도는 걸까? 허튼 소리라고만은 할 수는 없다. 꼰대로부터 꼰대질을 당하다 보면 스물스물 전염되어 다시 바이러스 전파자가 되는 건 피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와 함께 권위의식에 대한 개인의 거부감과 개인의 주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커지면서 사람들의 ‘꼰대 감지 레이다’가 민감해진 것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꼰대를 지탄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넓어진 것이다. 도덕적, 윤리적, 철학적으로도 남에게 감놔라 배놔라 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 그러나 꼰대를 탓함과 동시에 나 자신도 점검해야 한다. 모르는 새 꼰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지도 모르니.

## 나이 드는 건 이제 공짜다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꼰대 테스트에 나와 있는 문제 태도의 반대로 행동하면 된다. 먼저, 나이를 잊어야 한다. 그렇다고 나이에 걸맞지 않게 젊은 이들의 유행에 편승하거나 젊은이들과 억지로 어울리라는 것이 아니다. 그들과 위 아래를 나누지 말라는 것이다.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하고 서로의 나이를 들먹이지 않는다. 나이로 유세 떠는 것은 나잇값을 못하는 행동일 뿐이다. 나이는 공짜로 먹는 게 아니라는 것은 옛말이 되었다. 온라인상에서 반향을 일으킨 박호현 초등학생의 유명한 시구에서처럼 이제 “나이 드는 것, 공짜”다.

자랑이 나오려 할 때는 혀를 깨물어서라도 참아야 한다. 자기 입으로 하는 자랑은 역효과만 낳는다. 자기 자랑이 심한 사람은 오히려 열등감이 있다는 심리학 보고는 이미 상식이 되었다. 과거의 자랑거리는 이미 유효기간이 한참 지나 영향력이 흐발된 지 오래다.

출퇴근 시간을 지키고, 할 일을 제대로 해 낸다면 후배의 사생활에는 관심을 끈다. 구인 공고에서 가족 같은 회사는 가장 피해야 할 회사가 되었다. 사무실 밖의 일은 몰라야 하며 알아도 모른 척 해주는 게 미덕이다. 근무시간 외의 회식이나 휴일의 야유회를 강요하는 것도 꼰대로 가는 지름길이다.

## 존중하고 겸손하라

10년, 20년 전보다 세상의 변화는 더욱더 빨라졌다. 태어나기도 내가 먼저, 입사도 내가 먼저 했건만 변화에 먼저 적응하는 것은 나보다 젊은 이들이다. 나와 다른 그들의 생각과 일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변화를 따라잡고 내 세계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를 위해서는 본인의 현 위치를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본인은 의도치 않았다 하더라도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또는 갑의 위치에 있음으로 인해 갑자기 꼰대의 모습이 표출될 수 있다. 모르는 사이 내 안에 스며든 꼰대 바이러스를 탐지하고 미리 그 발현을 차단하자. 상대를 존중하고 스스로를 낮추는 모습은 상대에게 자연스러운 존경을 끌어낼 것이다. 마지막으로 SNS 속의 고언, 꼰대의 육하원칙과 꼰대 방지 5계명을 소개한다. 이를 거울과 방패 삼는다면 내 나이와 지위에는 자연스레 가치가 더해질 것이다.

## 꼰대의 육하원칙

1. Who 내가 누군지 알아?
2. What 네가 뭘 안다고?
3. Where 어디 감하?
4. When 내가 너만 했을 때는 말야~
5. How 어떻게 그걸 나한테?
6. Why 내가 그걸 왜?

## 꼰대 방지 5계명

1.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2. 내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다.
3.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4. 말하지 말고 들어라. 답하지 말고 물어라.
5. 존경은 권리가 아니라 성취다.

# 찻잔에 꽃을 담다

좋은 것은 오감으로 느끼고 싶은 법이다. 눈으로 보고, 향기를 맡고, 만져서 촉감을 느끼고, 맛을 음미하며 소리에 둘러싸이고 싶다. 그것이 꽃이라면 더욱 행복할 것이다. 꽃을 즐기는 다양한 방법 중 꽃차는 오감을 두루 만족시켜 준다. 아름다운 색감과 향기, 차의 종류마다 다른 맛은 물론 차를 따르는 소리와 입술에 와 닿는 꽃잎의 부드러움까지, 꽃차는 꽃과 함께하는 완벽한 티타임을 만든다. 한철 꽃에서 한 잔의 꽃으로 다시 피어나기까지 120시간을 기다려온 꽃차들을 소개한다.

자료 제공 · 꽃을담다



## \* 꽃을담다

'꽃을담다'의 한 송이 꽃차가 완성되기까지는 120시간이 걸린다. 꽃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직접 밭로 뛰어 지방 농가를 찾고, 생산지에서 직접 확인한 국내산 꽃을 여러 번 테이스팅하여 가장 자연에 가까운 꽃차를 만든다. 다른 꽃차 브랜드와 차별화된 나비 티백, 티스틱 등은 인상 깊은 선물이 된다.

[www.iloveflowertea.com](http://www.iloveflowertea.com)



꽃에 사뿐, 나비가 앓다



반드시 찾아올 행복



찻잔에서 우아하게 피어나다



자연을 그대로, 가장 자연스럽게

## マン드라미 꽃차 + 나비티백

강렬한 색으로 오래오래 피어 '열정'이라는 꽃말을 지닌 만드라미. 예쁜 분홍의 차 우림색(수색)을 띠는 만드라미 꽃차는 여자를 위한 차로도 불린다. 지혈 효과가 좋아 코피 등이 자주 나는 이에게도 좋고, 야맹증과 같은 안과 질환에도 도움을 준다고 한다. 핑크빛 수색이 고와서 차를 우리고 꽃을 보듯 하염없이 바라보게 되는 차다. 특히 티백이 찻잔 안에 빠지는 것을 방지해 주는 나비 티백 홀더를 이용하면 만드라미 꽃차의 향기는 더욱 진해지는 듯하다. 만드라미 꽃차는 따뜻하게, 혹은 차게 우려 마셔도 좋다.

## 메리골드 꽃차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뷰티인사이드>에 나와 메리골드의 꽃말은 더욱 유명해졌다. 그 꽃말은 바로 "반드시 찾아올 행복". 메리골드 꽃잎의 알록달록한 색감은 꽃의 생명력을 그대로 전하고 차를 우렸을 때의 황금빛 수색은 환희에 찬 행복의 순간을 담은 듯하다. 메리골드는 꽃차 중 가장 많이 알려져 있으며 눈에 좋은 루테인 성분도 풍부해 인기가 높다. 꽃는 물로 우린 후 유리 물병에 얼음물로 차게 담아내면 선명한 노랑과 주황의 조화가 더욱 싱그러운 느낌을 준다.

## 목련 꽃차

꽃이 피는 순간을 보고 싶다면 목련 꽃차를 추천한다. 딱 한 송이면 충분하다. 물을 만나 서서히 피어나는 목련 꽃차는 우아한 시간을 만들어 준다. 꽃잎이 벌어질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다면 조금 넓은 찻잔을 이용하자. 알싸한 향이 강한 목련 꽃차는 기관지, 호흡기와 관련된 건강에 도움을 많이 주고, 비염 완화에도 효과가 크다고 한다. 한방에서는 목련꽃을 신이(辛夷)라고 부른다. 매운 맛이 코감기, 목감기 등을 평온하게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부드러움 속에 숨은 알싸함, 노란 꽃잎과 은은한 수색이 매력적인 차다.

## 조팝나무꽃 티스틱

꽃이 조밥을 닮았다 하여 이름이 조팝나무인 이 나무는 허리를 달래줄 순 없었지만 해열에는 큰 도움이 되었다. 동의보감에 '가래를 토하게 하고 열을 신속히 치료할 수 있다.'고도 쓰여 있으며 최근에는 해열제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아스피린 원료로도 쓰인다. 약효도 좋지만 조팝나무꽃 티스틱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매력을 느끼게 한다. 꽃이 달린 가지째 찻잔에 담긴 모습이 마치 시냇물에 드리워진 꽃가지를 연상케 한다. 정성에 감성을 더한 선물을 하고 싶다면 조팝나무꽃 티스틱이 어떨까. 조팝나무 외에도 국화, 쑥꽃, 생강나무꽃 등의 플라워 티스틱이 있다. 작은 유리관 포장도 독특하다.



## 푸른 공기 가득 식물원 산책

햇살이 새싹을 부풀리는 계절, 마음도 부풀어올라 어디론가 둉실둥실 날아오르고 싶어지는 봄이다. 그러나 미세먼지 때문에 모처럼 계획했던 야외 나들이는 무산되기 일쑤. 이럴 땐 식물원 나들이가 어떨까. 투명한 온실에 따스한 햇살과 꽃과 나무가 뿐만 아니라 산소를 가득 담은 식물원은 상쾌한 하루를 만들어줄 것이다. 올해 5월 정식 개장을 앞두고 지난해 10월부터 임시 개장한 서울식물원은 개장 두 달 만에 97만 여 명이 다녀갔을 정도로 인기다. 서울식물원의 푸른 공기 속에서 심호흡을 해보자.

### 지하철 옆 식물원

서울 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의 마곡나루역 3, 4번 출구로 나가면 너른 잔디정원을 만날 수 있다. 강서구 마곡동 서울식물원의 시작점, 열린숲이다. 이곳 광장의 방문자센터에서 이용 안내문을 챙겨 식물원 여행을 시작해 보자.

열린숲에서 유리 온실을 향해가는 길은 주제원이다. 주제원은 한국 자생식물로 전통 정원을 재현했다. 참억새, 실새풀 등 그라스가 이국적 정취를 만드는 바람의 정원, 한때 흔했지만 이제는 잊혀진 식물을 다시 만나 시간여행을 떠나게 되는 추억의 정원, 경관을 정원으로 끌어들이는 한국 정원의 개념인 차경과 풍광의 화룡점정이 되는 정자를 만나는 사색의 정원 등이 걸

음걸음마다 나타난다. 한반도의 자생종과 특산식물로 옛 한국의 전통 숲도 상상해 보고, 새로운 정원 모델을 제시할 정원사의 정원을 지나면 서울식물원의 압도적인 조형물, 온실을 만나게 된다.

### 꽃잎 속 세계 여행

마치 꽃잎 같기도, 연잎 같기도 한 주제원 온실의 부드러운 외형은 등실 떠올라 날아갈 준비가 된 우주선으로도 보인다. 만약 그렇다면 온실은 우주에 지구 곳곳의 생물을 소개하게 될 것이다. 열대와 지중해 기후 환경으로 독특하게 발달된 세계 12곳의 도시 정원을 담고 있으니 말이다. 온실에 들어서면 흙! 끼치는 습한 공기는 마치 동남아행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문을 나설 때처럼 여행 온 기분을 느끼게 한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브라질, 콜롬비아의 열대 정원에는 망고나무 옆 망고가게, 커피나무 옆 카페 조형물을 설치해 놓는 식으로 지역 특색을 살려 더욱 여행 느낌이 살아난다. 미국,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 그리스, 호주, 터키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지중해 정원도 낯선 풍경으로 방문객들의 사진을 풍성하게 만든다. 곳곳에 포토 스팟이 있어 SNS용으로도 안성맞춤이다.

인공폭포의 물소리, 곳곳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점점하게 흘러 나오는 새소리 등 자연의 소리는 온실 안 소음을 정화해 준다. 빛 투과율이 우수한 특수 비닐 지붕에서 쏟아져 내리는 햇빛으로 가득한 지름 100미터, 아파트 8층 높이의 온실은 세계의 작은 숲이 된다. 온실 안 통행로는 훨체어와 유모차도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다. 삼림욕은 하고 싶지만 유통불통한 길이나 오르막이 힘겨운 어르신과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코스인 셈이다. 훨체어나 유모차가 필요하다면 열린숲이나 주제원의 안내데스크에서 빌릴 수 있다.

### 풍성하게, 꼼꼼하게 즐기기

온실과 연결된 식물문화센터에는 다양한 편의 시설과 전시, 문화 공간이 있다. 카페와 키즈카페, 씨앗도서관과 식물연구소, 식물전문도서관, 상설 및 기획전시관도 다양하게 경험해 보자. 서울식물원의 조성 목적과 추진 과정을 소개한 <서울식물원 탄생기록> 전시와 정찬부 작가의 <피어나다> 전시를 4월 14일 까지 볼 수 있다. 초록, 빨강, 노랑, 파랑 등 생동감 넘치는 색으로 생명력을 전하는 정찬부 작가의 설치 작품은 꼭 가까이에서 감상해 보길 권한다. 작품의 재료에 또 한번 놀랄 것이다. 카페에서는 때에 따라 씨앗과 구근을 팔기도 하고, 씨앗도서관에서는 토종 씨앗을 대여해 준다. 날이 맑다면 온실 밖도 거닐어 보자. 산책길과 수변 관찰 데크가 조성된 호수원에서는 식물원을 조망하거나 텃새를 관찰할



서울식물원 온실 야경



<서울식물원 탄생기록> 전시



정찬부 작가의 <피어나다> 전시

수 있다. 1928년 일제강점기에 지어져 주변 평야에 물을 대던 배수펌프장의 목조 건물은 마곡문화관으로 복원되어 거친 역사의 흐름을 보여준다. 서울식물원 숲문화학교와 어린이정원학교는 요가와 우드카빙, 야생화 자수 등 다양한 문화 강의와 행사가 열린다. 어린이와 동행할 경우, 미리 홈페이지에서 탐험일지를 인쇄해 미션을 수행하면 보다 즐거운 관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홈페이지 > 참여하기 > 자료실 > 서울식물원 탐험일지’에서 다운받아 미션을 수행하고 식물문화센터 3층 사무실에서 스탬프 인증을 받으면 탐험가 배지를 준다. 식물원 내 식물을 먼저 만나는 컬러링 페이지도 인쇄할 수 있다.

## 식물원 속 역사와 꽃

식물원의 온실은 묘한 구석이 있다. 동물원의 울타리 안에는 들어갈 수 없지만, 식물원은 우리를 받아들여 잠시나마 자신들의 세계에 머물게 한다. 밖과 차단된 온실 속 공기는 시간의 흐름을 미묘하게 바꾼다. 전국의 크고 작은 온실에서 각각 다른 공기와 시간을 체험해 보자.



서울 창경궁 대온실



경주 동궁원



아산 세계꽃식물원

**서울・창경궁 대온실** |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온실은 현재 창경궁 안에 있는 대온실이다. 일본이 순종의 마음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창경궁에 동물을 들이고 식물원을 세운 뒤 벚나무를 곳곳에 심고 이름을 창경원으로 바꿨던 일제강점기의 일이다. 1984년, 창경궁 복원 사업으로 동물은 모두 서울대공원으로, 벚나무는 윤중로와 서울 어린이대공원으로 옮겨졌지만 대온실은 대한제국 말기 서양 건축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건축사적 유산으로 인정받아 2004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고 긴 보수공사 끝에 2017년 11월 다시 개방되었다.

일본 황실의 원예학자의 설계와 프랑스 회사 시공의 우아한 외관에 영국 타일 제조사의 옛 바닥 타일까지 그대로 복원한 대온실에서는 화려함과 고풍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세계 최초의 온실은 어느 나라에서 생겼을까? 놀랍게도 우리나라로, 세종 때 편찬된 「산가요록」에 기름종이와 구들을 이용한 온실 설계법이 소개되고 있다.

**경주・동궁원** | 통일신라시대 궁궐터였던 옛 안압지, 지금의 동궁과 월지에는 화초와 진금이수, 즉 진귀하고 기이한 새와 짐승을 길렀다는 문무왕 14년 삼국사기의 기록이 있다. 이러한 역사적 콘텐츠가 현대적으로 재현된 곳이 경주 동궁원이다. 유리 궁궐처럼 우뚝 선 온실에는 신라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천마도상 등을 활용하였으며 봉황목, 보리수, 사계목서, 오렌지 자스민 등 다양한 나무와 사계절의 컬러풀한 꽃을 감상할 수 있다. 본관이 신라의 역사와 함께 아열대 우림이 특징이라면 2관은 힐링식물과 현대식 정원이 컨셉이다.

식물원 외에 일만송이 토마토정원과 숨바꼭질 정원 등의 농업연구체험관, 경주버드파크 등도 경주 동궁원의 자랑이다.

**아산・세계꽃식물원** | 2004년 개장하여 매년 15~20만 명의 관람객이 찾는 충남 아산세계꽃식물원과 NIAF 가든센터는 연중 3,000여 종의 원예종 관상 식물을 관람할 수 있는 온실로, 카페와 레스토랑, 휴식 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꽃 손수건 염색과 분갈이, 다육 식물 증정 등으로 생활 속 꽃의 기쁨과 위로, 즐거움을 널리 알리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화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배온실의 높이를 전시에 적합하도록 50미터 상승시키는 공사를 끝내고 재개장, 온실에서 느낄 수 있는 담답함을 개선하였다. 사진 출사로 자주 이용되는 아산식물원인 만큼, 아름다운 꽃으로 시각과 후각까지 만족스러운 나들이를 만들어줄 것이다.



N O R O O  
P E O P L E

더 아름답고 더 안전하며  
더 편리한 고객의 삶을 위해  
오늘도 NOROO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고민합니다.

NOROO의 도약은 곧  
고객의 도약이 될 것입니다.



## 공감에서 동행, 그리고 이제 도약이다

### 2019 (주)노루페인트 VIP 특약점 세미나

롯데호텔 제주의 그랜드볼룸 단상 위에 흰 도포를 입은 이가 올랐다. 봇을 잡은 그는 심장을 두드리는 북소리를 따라 넓은 화쪽 위를 춤추듯 움직였다. 작은 봇으로는 섬세하게, 두 손으로 들어야 할 만큼 큰 봇으로는 대담하게 그은 선은 “도약”이라는 글자를 완성하여 그 정신을 뜨겁게 전달했다. 2019년 노루페인트 VIP 특약점 세미나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도약**

#### 공감과 동행, 열정과 협력

서예가의 강렬한 퍼포먼스로 청중의 눈과 귀는 단숨에 무대 위로 집중되었다. 이어 무대에 오른 (주)노루페인트 김용기 부회장은 지난해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도약의 의미를 이야기하며 청중의 집중을 이어갔다. 원자재 가격은 상승하고 경제 성장률은 하락한 2018년의 경제 위기 속에서도 노루페인트는 매출의 볼륨을 기워냈다. “이는 사장님들의 열정과 협력 덕분입니다.” 김용기 부회장은 감사의 말을 전했다. “저희 세미나

의 2년 전 테마는 공감, 그리고 작년은 동행이었습니다. 공감과 동행으로 이룬 성과 위에서 더욱 높이 올라서자는 의미에서 2019년의 테마를 ‘도약’으로 정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한마음으로 공감하고 함께 동행하고 힘차게 도약하는 노루가 되겠습니다.”라는 그의 결의에 찬 말은 무대에 도열한 임원들과 무대 반대편에서 든든한 배경을 이룬 직원들의 각듯한 인사로 더욱 강조되었다. 이들의 정성과 수고로 준비된 행사는 힘찬 박수 속에서 본격적인 신제품 소개로 접어들었다.



세미나의 2년 전 테마는 공감,  
그리고 작년은 동행이었다.  
공감과 동행으로 이룬 성과 위에서  
더욱 높이 올라서자는 의미에서  
2019년의 테마는 '도약'으로 정해졌다.

### 2019, 친환경의 원년

"작년 세미나에서 각종 규제에 따른 친환경 제품이 트렌드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올해는 친환경 제품으로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친환경 제품을 중점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신제품 발표의 진행자인 기술연구소장 김재학 상무와 정순미 대리는 2019년부터 적용되는 환경법규의 변경 사항과 함께 14종의 신제품을 차근차근 소개했다.

건축용에서는 순&수 워터가드(soon&soo Water Guard)와 라돈가드(Radon Guard), 에너지세이버 쿨워머(Energy Saver Cool Warmer) 등이 보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주는 신개념의 수성페인트로 청중의 관심을 모았다. 항곰팡이, 항세균 기능이 있는 순&수 워터가드는 습기가 있는 콘크리트 면에도 도장이 가능하다. 순&수 라돈가드는 도막이 치밀하고 탄성력이 높아 벽면에 크랙이 발생해도 도막이 유지된다. 순&수 워터가드로 하도 도장 후 라돈가드로 상도를 도장하면

발암물질인 라돈의 방출량은 20% 넘게 줄어든다. 에너지세이버 쿨워머는 열전도율을 낮춰주는 미세한 공기 입자 도막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촉감을 준다. 기존의 순&수 100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한 순&수 100 플러스는 가성비 최고의 내부용 수성페인트로 소개되었다. 미끄럼 방지용 페인트에도 친환경성이 더해져 냄새도 없고 흔들기만 하면 바로 쓸 수 있는 이지 논슬립(EASY NON-SLIP)이 출시되었다.

방수재와 바닥재, 금속 전처리용 프라이마 등에서도 친환경성이 부각되었다. 수성 탄성 방수 시스템 개발로 하도, 중도에 이어 이제 상도까지 중금속과 냄새를 최소화한 수성 방수 시스템이 완성되었다. 에코 탄성탄과 크린탄 역시 환경 규제에 대응한 MOCA(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Free의 바닥재, 방수재로서 내마모성, 내구성 등 각종 성능까지 더욱 우수해졌다. 자보용(자동차 보수용)에서는 워터큐의 완성형 버전인 워터큐(Water-Q) FULL SERIES가 소개되었다. 이는 2022년의 VOCs 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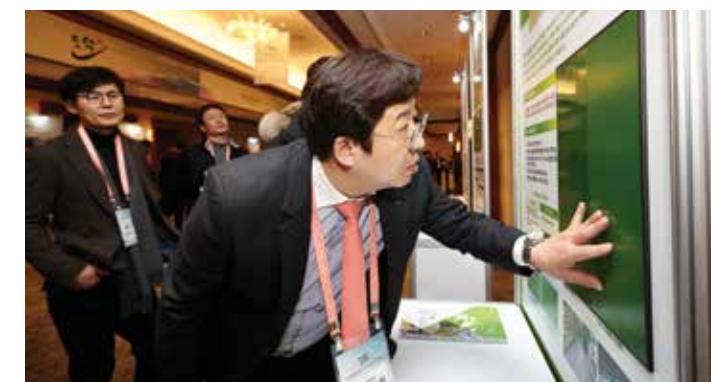
를 대비한 친환경 보수 도장 시스템으로 수성 베이스에서도 다양한 색상을 안정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매우 우수한 견조성과 연마성, 기포 최소화를 구현하는 하이큐 앤디원 퍼티(HiQ Anyone Putty)로 자보에 비해 취약했던 퍼티 시장에서도 선두로 나아갈 계획이다.

### 강한 신제품을 디딤대 삼아 도약하는 2019

신제품들의 혁신성과 놀라운 성능 개선에 세미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다. 2부의 연사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나와의 약속>을 강연한 유인경 강사도 "페인트의 세계가 이렇게 넓고 다양한지 미처 몰랐다."며 감탄과 경이를 표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마케팅팀은 "노루페인트는 소비자 가치를 높이는 기술과 컬러를 갖춰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는 제품을 만들고 있다. VIP 특약점 세미나는 본사와 특약점이 신제품과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며 전략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자리"

라고 밝혔다. 또한 진명호 대표이사는 "축적된 기술 역량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 파트너인 특약점과 동행해 온 노루페인트는 올해도 중장기적 경쟁력 확보는 물론, 지역 상권 경쟁에서도 한 발 빠르게 나아가기 위해 특약점과 함께 고민하고 도약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매해 세미나에서 발표되는 신제품들은 기술의 발전에는 끝이 없다는 사실을 체감케 한다. 고군분투하며 달려온 2018년을 도움닫기로 삼고 신제품을 디딤대로 하여 노루페인트와 특약점은 2019년도 더욱 높이 도약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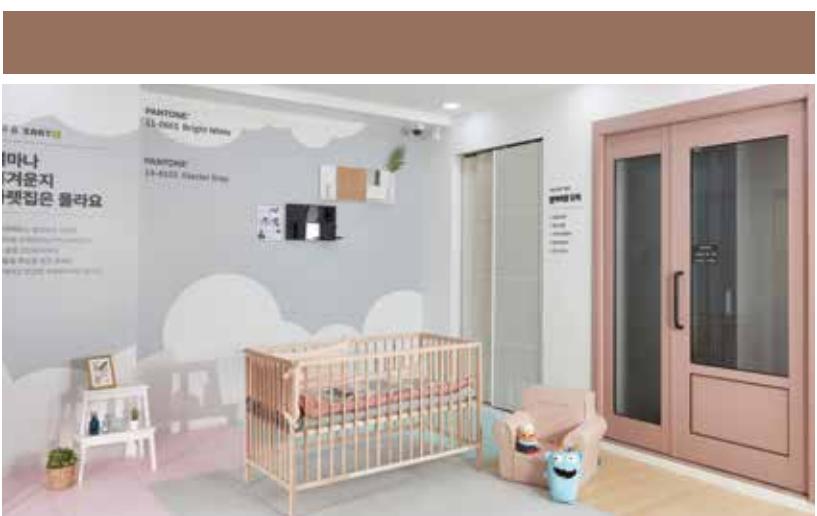
PREMIUM INTERIOR PAINTING SERVICE

# HOW HOM INTERIOR



##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 하우홈 인테리어로 새롭게

최근 라이프 스타일 시장이 커지고 있다. 작은 물건 하나에도 자신의 취향이나 가치가 드러나길 원하는 소비자의 욕구가 점점 강해지면서 시장 또한 이들의 가치 소비 욕구를 겨냥한 제품과 서비스로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고 있다. (주)노루페인트의 하우홈 인테리어([www.howhom.co.kr](http://www.howhom.co.kr))는 토탈 인테리어 서비스로 라이프 스타일 시장을 이끌고 있다. 고객이 원하는 삶의 구현을 돋는 하우홈 인테리어가 최근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를 위해 올지로에 오프라인 쇼룸을 오픈했다.



### 라이프 스타일 파트너, 하우홈 인테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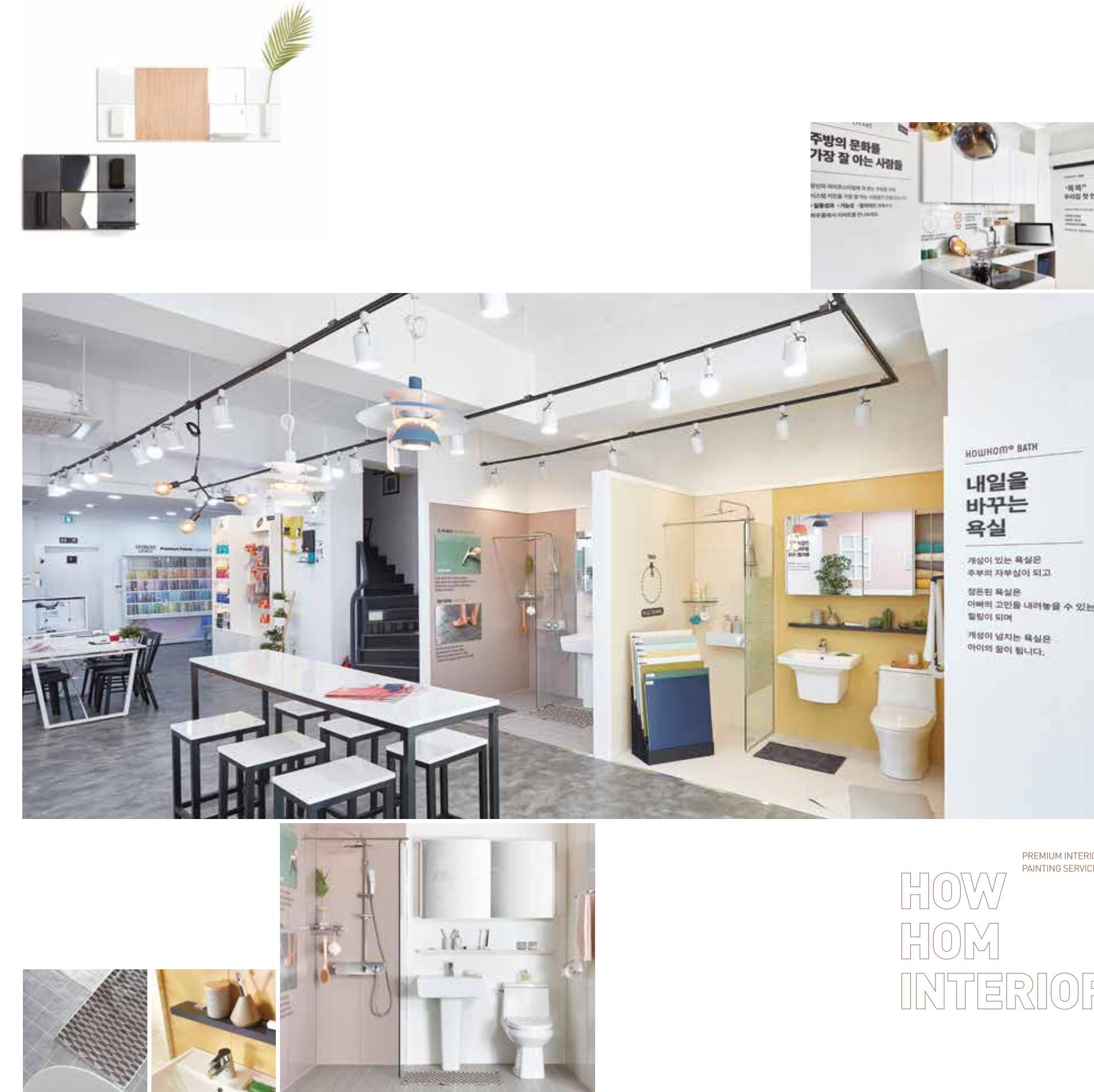
몇 년 전부터 유행한 미니멀 라이프는 이제 라이프 스타일의 대세로 자리잡았다. 미니멀 라이프는 물건을 줄이는 동시에 취향을 확고히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불필요한 물건, 불필요한 시간을 줄여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확실히 구축하고 인테리어를 하더라도 획일적인 구성이 아닌 자신만의 개성이 드러나는 공간에 집중한다. 컬러 페인팅 시공으로 고객의 개성을 컬러로 표현해 주는 노루페인트는 하우홈 인테리어를 통해 더욱 다양한 시공 서비스를 제공, 고객이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인테리어로 완성하는 것을 돋고 있다. 말하자면 라이프 스타일 파트너이다.

주방 집기를 짹 정리해 미니멀해졌는데 줄눈이 엉망일 때, 소박한 거실을 완성했는데 매트의 알록달록 캐릭터가 눈에 거슬릴 때, 소음을 차단해 조용한 공간을 완성하고 싶을 때, 욕실의 타일 바닥이 미끄럽고 차가워 대안이 필요할 때 등 “어떻게 하지?”란 고객의 고민에 하우홈 인테리어는 모든 대답을 갖고 있다. 그 대답을 눈으로 확인하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올지로의 하우홈 인테리어 매장이다.

## 020 서비스로 편리한 라이프 스타일 샵

하우홈 인테리어 매장에 들어서면 기분 좋은 커피 향을 느낄 수 있다. 입구에 있는 카페가 편안하게 맞아주는 이 매장은 고객이 편하게 머물며 제품과 시공 결과를 직접 보고 상담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상담 코너를 마련했다. 앉을 곳 없는 작은 가게에서 도배, 장판, 조명 등을 개별 구매해야 하는 인근 상가에서 토탈 인테리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매장인 데다가 생활에 필요한 모든 시공 서비스를 개별 공간과 필요에 따라 의뢰할 수 있어서 가성비를 따지는 고객들에게 특히 인기이다.

하우홈 인테리어팀의 김설희 주임은 하우홈 인테리어가 ‘생활 시공 서비스’라고 이야기 한다. 전문 컬러 서비스는 물론, 꼼꼼한 품질 검증을 거쳐 만든 하우홈 인테리어의 중문, 조명, 욕실 등 생활에 필요한 크고 작은 제품과 시공 서비스를 빠짐없이 제공하니 소비자는 그중 원하는 것만 합리적으로 골라 믿고 의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문의 경우, 쓰리 도어 연동이었던 기존 제품에 비해 하우홈은 디자인 투도어, 미닫이 도어도 출시하여 현관 중문뿐 아니라 가벽으로도 인기를 모으고 있다. 기존 인테리어에 조화를 이루도록 은은한 컬러를 가진 소음 방지 매트인 하우홈 자리엔은 전문 시공팀의 마무리 까지 완벽해서 베이비페어의 인기 상품이다.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는 소비자의 욕구를 배려하는 하우홈 인테리어 서비스는 욕실에서도 드러난다. “하우홈의 욕실 패널은 타 업체보다 다양한 컬러를 구현하고 몰딩의 컬러까지 동일해서 깔끔한 인테리어를 만듭니다.



다. 판넬 컬러와 몰딩 컬러가 달라 조립식 욕실 느낌이 있었던 기존의 노출 몰딩 시스템을 수정해 이질감 없는 마감 시공이 가능한 하이드 몰딩 시스템을 출시했습니다. 일본의 토리사와 제휴한 욕실의 논슬립 시트는 따뜻한 온열감에 미끄럼까지 방지해 어르신과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최고의 욕실 바닥 재이지요.” 김설희 주임의 설명이다.

## 욕실에서 주방까지, 트렌드를 한눈에

최근 하우홈 상품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싱크대 부착형 음식물 처리기인 ‘하우홈 싱크리더(SINKLEADER)’다. 이제까지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는 분쇄와 건조 형태여서 결국에는 쓰레기를 꺼내 버려야 하는 구조였다. 하우홈 싱크리더는 국내 유일의 3중 회전날, 3중 안전장치를 장착한 데다가 처리기 내부에 있는 미생물이 음식물을 분해, 소멸하여 25초만에 막힘이나 역류 걱정 없이 하수구로 100% 배출시킨다. 획기적인 처리방식에 하우홈 싱크리더는 CJ홈쇼핑에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상담 전화를 받으며 성공적으로 런칭되었다. 고객의 생활 패턴과 인테리어 진행 방식이 바뀌고 있는 지금은 하우홈 인테리어의 역량이 더욱 발휘될 수 있는 기회라고 김설희 주임은 말한다. 생활에 아름다움을 전하는 컬러 인테리어에 편리함과 안전을 가미한 제품과 시공 서비스로 하우홈 인테리어는 확장되고 있다. 온라인 샵과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완성해 주는 하우홈 인테리어를 만나보자.

PREMIUM INTERIOR PAINTING SERVICE  
HOW HOM INTERIOR

### 하우홈 인테리어 을지로 매장

영업시간 : 월~토 오전 8시~오후7시 (일요일 휴무)  
서울시 종로 을지로 127 (02) 2285-4279



## 더 안전한 공간, 노루페인트가 도와드립니다

(주)노루페인트 건축기술1팀 안윤수 차장

연일 높아지는 미세먼지 수치는 이제 우려와 걱정을 넘어 공포를 느끼게 한다. 가능하면 실내에 머무르려 하지만 실내 역시 안전하지 않다. 문이며 창을 꼭꼭 닫아도 틈새로 미세먼지는 들어오며 실내의 가구나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VOCs, 라돈 등으로 인해 공기의 질이 바깥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 이를 위해 (주)노루페인트가 나섰다.

### 더욱 심각해지는 실내 공기질

사실 공기질에 대한 문제는 미세먼지 이전에 새집증후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새집증후군(Sick House Syndrome)은 실내의 화학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인체의 질병이다. 실내 건축자재 속에 포함된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같은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s), 라돈 등 오염물질이 공기 중으로 배출되면서 천식 등 호흡기 질환과 아토피성 피부 질환, 암 등을 일으킨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렇듯 문제는 오래 전부터 인지되었지만,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신축되는 주택이나 아파트에 쓰이는 건축 자재에서도 해로운 화학물질은 여전히 방출되고 있다. 소비자는 이를 막기 위해 베이크 아웃과 환기, 공기청정기 등으로 힘에 부치는 전쟁을 하는 중이다. 게다가 여기에 미세먼지까지 더해져 전세는 더 나빠졌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

을까? 실내 마감재인 페인트라면 최종 방어선을 그을 수 있지 않을까? 노루페인트 건축기술1팀의 안윤수 차장은 연구와 실험을 거듭했다. 그리고 팬톤에어프레쉬 페인트(2018)에 이어 올해는 순&수 워터가드, 라돈가드 등을 잇달아 출시했다.

### 페인트, 최종 방어선이 되다

팬톤에어프레쉬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시험 결과 일반 수성페인트 대비 11배 이상의 포름알데히드 흡착율을 보여준다. 친환경 인증마크와 항균 마크를 인증받은 페인트로 국토교통부 관할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 권장 기준의 하나인 흡착 건축 자재의 성능 평가 기준을 획득하기도 했다. 페인트가 화학 물질을 흡착해 공기질을 개선한다니,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팬톤에어프레쉬 페인트는 특수 NANO PORE SIZE 구조의 미세 기공과 분자끼리 끌어당기는 힘인 반데

르발스 힘을 통해 암모니아 등 저분자량의 물질을 흡착하고 포름알데히드를 흡착, 분해합니다. 물리적 흡착과 화학적 반응의 메커니즘으로 기능하는 것이지요.” 안윤수 차장의 설명이다.

팬톤에어프레쉬가 이미 공기에 떠다니는 유해 물질을 제거한다면, 최근 출시한 순&수 워터가드와 라돈가드는 유해 물질의 방출을 막는다. “순&수 워터가드는 습한 곳에서도 도장이 원활합니다. 도막의 건조성이 좋고 항세균, 항곰팡이 기능까지 있어요. 세균과 곰팡이는 벽에서 기생하다가 공기 중에도 떠다니게 되는데 그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순&수 라돈 가드는 침목의 살인자라 불리는 라돈의 방출을 차단해 준다.

“라돈은 무색, 무취, 무미의 자연 방사선 물질로 장기간 흡입할 경우 폐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최근에는 건축자재뿐만 아니라 매트리스, 대리석 등에서도 검출되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지요. 생활환경 곳곳에서 라돈이 발견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감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 석고 보드와 같은 건축 자재의 크랙을 통해 라돈 가스가 실내로 유입될 수 있는데, 순&수 라돈가드는 높은



노루페인트 건축기술팀의 안윤수 차장은 환경물질에 대한 연구와 실험을 거듭했다.

노루페인트는 2018년 팬톤에어프레쉬 페인트에 이어 올해는 순&수 워터가드, 라돈가드 등의 제품을 선보였다.

팬톤에어프레쉬

순&수 워터가드

순&수 라돈가드



탄성으로 크랙에도 저항성이 있어 라돈 가스의 방출을 낮춥니다. 저온에서도 신장률이 좋아 겨울철에도 쉽게 갈라지지 않고요.” 안윤수 차장이 개발한 세 가지 제품 모두 공기질을 개선하고, 유해요소를 차단하는 등 실내에 방어막을 형성함으로써 안전한 생활 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한다. 이만하면 실내 공기질 보호의 최전선은 노루페인트가 지킨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노루페인트, 더 맑은 숨을 만들다

이러한 제품 개발을 위해 안윤수 차장은 늘 사회적 이슈를 고민하고 오랜 기간 자료를 수집하며 연구와 실험을 반복했다. 기능성 페인트는 개발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세계의 환경 정책과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고 안전성이 입증된 원료를 선정, 엄격한 국내 규제를 준수하며 개발된 노루페인트의 제품들은 어떤 수입제품보다도 월등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안윤수 차장은 “냄새와 유해물질이 없는 친환경 페인트를 넘어, 저희는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페인트를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앞으로도 계속 개발될 노루페인트의 친환경 제품으로 우리는 더 안전한 공간에서 더 맑은 숨을 쉴 수 있을 것이다.

# 캘리그라피, 마음을 쓰고 글을 그리다

무언가가 드물어지면 오히려 그 가치는 더욱 드러난다. 손글씨를 쓸 일이 없어진 지금, 캘리그라피가 각광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의 맥락일 것이다. 멋진 글귀, 화려한 타이포그래피의 글자가 인터넷에 넘쳐나지만 손으로 정성스럽게 그려낸 캘리그라피는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는 희소성으로 마음을 끌어당긴다. 그 매력을 아는 (주)노루홀딩스 부속실의 최 올리비아 주임이 아트콜라보랩의 캘리그라피 원데이 클래스에 함께했다.



## 문래동 예술 창작촌과 아트콜라보랩

캘리그라피 원데이 클래스가 이루어진 곳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취미미술 전문 공간 아트콜라보랩이다. 크고 작은 철공소가 가득한 문래동은 이제 일반인들에게는 문래 예술 창작촌으로 더 익숙하다. 약 10여 년 전부터 예술가들이 하나둘 이곳에 작업 공간을 만들기 시작하여 자생적 예술 마을의 지도가 철공소 골목을 따라 형성되었다. 낡고 오래된 철공소의 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인지 카페며 아트 스튜디오의 간판은 몸을 숨기듯 골목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다. 아트콜라보랩 역시 간판이 없다시피 한 외관이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면 세련된 카페와 함께 각종 미술 재료, 가죽공예 도구가 즐비한 공방의 풍경이 펼쳐진다. 최 올리비아 주임과 김 이고르 씨의 캘리그라피 수업도 이곳에 준비되었다.



(주)노루홀딩스 부속실

최 올리비아 주임과  
친구 김 이고르 씨



### 믿음, 소망, 사랑 그중 제일은 사랑

“캘리그라피는 아름다운 서체란 뜻을 지닌 그리스 어에서 유래되었어요. 보통 글씨는 가독성에 초점을 두어 반듯하게 써야 하지만 캘리그라피는 형태와 크기에 변화를 주어 씁니다.”

캘리그라피 전문 강사인 김신혜 씨는 캘리그라피의 어원을 설명한 뒤 바로 선긋기 연습으로 이끌었다. 최 올리비아 주임과 김 이고르 씨는 강사의 지도에 따라 각각 펜촉용 펜대와 봇펜을 골라 들고 직선과 곡선을 차근차근 그었다. 캘리그라피를 할 때는 필압을 조절해 획의 두께를 적절히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 그런데 고전하는 김 이고르 씨와 달리 최 올리비아 주임은 초반부터 완성도 높은 습작을 만들어냈다. 강사의 칭찬에 최 올리비

아 주임은 쑥스러워하며 말했다. “사실은 학생 시절에 서예를 좋아했어요. 중국에서는 만년필을 주로 사용하기도 했고요.”

최 올리비아 주임의 독특한 이력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러시아 태생의 재외동포인 최 올리비아 주임은 중국에서 오랜 기간 공부한 후 한국에 왔다. 덕분에 러시아어, 중국어, 한국어는 물론 영어에도 능통하다. 김 이고르 씨도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재외동포로 현재 한국에서 미세먼지를 연구하는 대학원생이다. 한국의 교회에서 만난 두 사람은 캘리그라피용 문구로 ‘믿음, 소망, 사랑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라는 문구를 골랐다.

“사랑은 모든 걸 의미하니까요.”라는 최 주임의 설명에 김 이고르 씨가 동감하며 말을 보탰다. “사랑

이 없으면 믿을 수 없고, 소망할 수도 없을 거예요.” 최 주임은 영문으로, 김 이고르 씨는 한글로 이 문구를 완성하는 게 오늘의 목표다. 종이에 한가득 연습을 하고 드디어 책갈피와 액자용 카드에 도전했다. 곡선이 많은 영문은 조심스레, 직선이 많은 한글은 힘있게 획을 그어가며 집중하는 두 사람이다.

### 시간과 정성의 작품, 캘리그라피

“와! 정말 잘하셨어요!” 마침내 완성해 낸 작품에 강사는 감탄을 연발했다. 두 시간 내내 고개를 숙이고 연습에 몰두했던 두 사람은 드디어 얼굴을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작품도 그들의 얼굴만큼이나 환히 빛났다. 글짓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는 글을 옮겨 적는 것이니 쉬워 보이지만 글자를 그려내듯 꾸며야 하는 캘리그라피는 사실 굉장히 어렵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캘리그라피를 배우고자 하는 것은 글에 의미와 특별한 정성을 담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너무 재미있었어요.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 라며 최 주임은 작품을 넣은 액자를 소중히 감쌌다. 액자 속 작품도 아름답지만, 더 아름다웠던 것은 작품을 위해 노력했던 두 사람의 시간이었다. 그들의 손으로 두 시간 동안 노력과 애정을 녹여냈기에 액자 속 글귀는 그 의미를 더욱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었다.



10월.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었다

### 캘리그라피를 체험한 이곳은?

취미미술 전문 공간인 아트콜라보랩은 수강생들이 일상 속에서 예술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돋는다. 문래점 외에도 홍대, 강남, 대학로 등에 지점이 있다.  
문래점 :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3가 56-1



# 국산화로 새로운 시장을 개발하다

## 대구 죄제이디켐

“우리는 없는 제품을 만듭니다. 수입품을 대체하는 국산품을 만들어 시장을 개발하지요.” 죄제이디켐 장환준 대표의 차분한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진하게 배어 있었다. 제이디켐은 노루페인트 안에서도 매출이 손꼽히는 공업용 대리점으로 1992년부터 지금까지 28년 동안 끈질긴 노력을 통해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각종 수지와 페인트의 국산화를 이끌었다.

## 시장은 만들어내는 것이다

대구 성서공단의 건물 한 모퉁이, 노루페인트 간판을 단 제이디켐은 밖에서 보면 어느 특약점과 같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른 점을 느낄 수 있다. 취급하는 페인트와 부속 도구의 종류가 좀더 단순하다. 공업용 도료 전문 대리점으로 주로 공장의 생산라인에 바로 납품하기 때문이다. 장환준 대표는 공업용이라는 특화 시장에서 자동차 인슐레이터 등 절연 쪽에 들어가는 수지와 도료를 공략해 왔다.

“저희는 각종 부품에 들어가는 수입 도료를 국산화하여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냅니다. 수입 도료를 쓰는 공정에 우리 수지와 도료를 쓰도록 제안하는 것이죠. 국산을 쓰면 공급도 안정적이고 운송의 불안과 규제로부터도 훨씬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가격 면에서도 매력적입니다. 고객사에게나 저희에게나 좋은 거래이지요.” 장환준 대표가 간단히 설명했지만 실제 납품은 장기간에 걸쳐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일단 납품의 기회를 만들었더라도 원자재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구매팀, 기술팀, 품질관리팀, 생산팀 등 거래처 전 부서의 검증과 테스트를 모두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길게는 3년까지도 걸린다. 하지만 일단 생산라





인에 들어가면 다시 바꾸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몇 년 이상을 장기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아이템이 된다. 제이디켐에게는 창업년도부터 지금까지 죽 납품하는 고객사도 있다.

“하지만 기존 품목에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업체들도 저희가 납품하는 생산 라인을 뚫기 위해 노력하니까요. 그래서 어떤 아이템을 새로이 준비해야 할지 항상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정성으로 만든 기회, 끈기로 성공시킨다

제이디켐이 지금의 탄탄한 입지를 만들기까지는 장환준 대표의 끈기와 정성이 있었다. 사업을 시작한 1992년의 첫 달을 그는 아직도 기억한다. “두꺼운 전화번호부에서 페인트를 쓸 만한 곳을 찾아 모조리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한달 동안

80여 군데를 무작위로 찾아갔어요. 그렇게 영업을 하니 2년 후에는 매출액이 부쩍 늘더군요. 정말 뿌듯했습니다.”

노루페인트 일반공업팀 오석문 팀장은 “공업용 대리점은 초기 매출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 대표님은 2~3년을 뚜심 있게 끌고 가셨죠. 처음 성공한 아이템을 통해 다음 아이템을 성공시키시며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라며

‘한 번 일에 착수하면 해결할 때까지 절대 놓지 않는 분’이라고 평했다. 그와 장환준 대표는 오랜 기간 함께 호흡을 맞춰 왔다. 공업용 도료는 고객사 요청에 따라 가격과 성능 등을 맞춰 주문 제작하기 때문에 제이디켐과 본사의 기술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수시로 전화하고 출장도 오지요. 현장 정보와 샘플을 공유하고 같이 가서 라인 테스트 하고, 랩 승인 받고, 양산해서 키워 나가고요.” 오석문 팀장은 빙그레 웃으

며 설명을 덧붙였다. “제가 대리이던 시절 그렇게 제이디켐과 개발한 제품이 지금도 납품되고 있습니다.”

끈기가 사업을 성공시켰다면 장 대표의 정성은 사업의 기회를 만들었다. 일반공업팀의 최석만 대리는 “이 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성’인데 장 대표님은 그 정성이 대단하신 분”이라고 말한다. 개발 과정에서 만나는 모든 부서의 담당자들을 챙기는 것은 물론, 퇴사한 담당자와도 꾸준히 연락하여 이직한 회사에서도 제이디켐을 찾도록 만들었다. 현장 대응에도 철저하여 28년간 단 한 번도 공정에 차질을 빚게 한 적이 없다.

그의 영업력을 탐낸 경쟁사가 함께 일하자며 몇 번이나 제안한 적이 있지만 그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NOROO는 긴 역사 위에서 쌓아온 브랜드 파워가 정말 큩니다. 덕분에 일하기가 수월해요.” 장환준 대표는 자신에 대해 노루페인트를 대리하는 영업사원이라고도 말한다. 과거에 노루페인트에서 영업인으로 일했던 OB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28년간 단단히 다져온 팀워크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일까, 그는 노루페인트와 제이디켐을 구분해 말하지 않는다. 그는 두 회사를 하나로 묶어 ‘우리’로 통칭한다.

#### 우리, 제이디켐과 노루페인트

새로운 시장 개발을 위해 늘 변화를 주시하는 장환준 대표는 1년여 전 아들인 장재영 대리를 영입하여 더욱 면 미래를 향해 달릴 준비를 하고 있다. “환경 관련 규제가 심해지며 다양한 업종이 사라지고 또 생겨날 것입니다. 전문화된 아이템을 이미 가지고 있더라도 더욱 다양한 상품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야 계속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도 단단하다.

그는 항상 ‘지금이 제일 좋을 때다.’라고 생각한다. 미래는 위기 속에 있고, 과거에 비교하면 현재는 발전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최선을 다해 현재를 성장시킨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일 것이다. 제이디켐과 노루페인트, 우리는 제일 좋은 지금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공업용 도료는 고객사 요청에 따라  
가격과 성능 등을 맞춰  
주문 제작하기 때문에  
제이디켐과 본사의 기술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 NEWS BRIEFING

## 뉴스 브리핑



NOROO 정기 주주총회 개최



㈜노루페인트, 안양지역환경단체 연합회 주관 환경봉사대상 수상



2019년 무재해 기원제 실시



서울대학교에 팬톤 올해의 컬러 적용

### (주)노루홀딩스

#### NOROO 정기 주주총회 개최

(주)노루홀딩스의 제73기 정기주주총회와 ㈜노루페인트의 제13기 정기주주총회가 주주 및 회사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월 21일, 안양 본사 NOROO 복지관에서 열렸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각 사의 2018년 사업연도의 영업수익 및 당기순이익, 종속회사 및 지분법투자회사의 실적을 포함한 연결손익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등이 발표되었다. 또한 회사 성과에 대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승인되고 이익잉여금 차분계산서(안)의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한 배당도 각각 승인되었다.

봉사대상 시상식이 지난 2월 22일 경기도와 안양시 의원, 여러 환경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우수 환경단체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환경운동 활성화와 시민의 환경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 행사에서는 지역 NGO 단체가 사회단체환경 분야와 산업체환경 개선 분야에서 각각 올해의 환경일꾼을 선정하여 환경봉사대상을 수여한다. 노루페인트는 그간 실시한 안양천 정화활동 등 지역 환경 보전을 위한 노력과 함께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실시한 많은 봉사활동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산업체환경개선 분야에서 환경봉사대상에 선정되었으며 박연수 노동조합 위원장이 시상식에 참석하여 메달과 상패를 수상하였다. 안양환경단체 연합회회장은 "오는 환경봉사대상을 받은 회원들처럼 헌신과 봉사의 마음으로 환경을 지켜나가자."고 말했다. 앞으로도 노루페인트는 지역 환경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 2019년 무재해 기원제 실시

지난 3월 9일, 안양 수리산에서 300여 명의 NOROO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무재해 기원제가 실시되었다. 마침 미세먼지 수치가 낮아 진 맑은 날씨 속에서 NOROO 임직원들은 동료애를 다지는 산행과 함께 안전을 기원하는 ESQM팀 담당자의 결의문 낭독으로 2019년

도 무재해를 다짐하였다. 노루페인트 진명호 대표는 "2019년도 사업 목표를 달성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서 세계 시장을 리드해 나가자."라고 말하며 결의를 모았으며, 노루코일코팅 이한복 부사장은 "사업 환경이 더 어려워져 올 한해도 녹록치 않을 전망이지만 임직원 모두가 단합해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매해 무재해 기원제의 장소가 되는 수리산은 독수리가 치솟는 형상이라 하여 수리산이라 불린다. 올 한해도 철저한 안전을 기함은 물론, 독수리가 더 높은 곳을 향해 가듯 NOROO도 상승하는 2019년이 되길 임직원들은 한마음으로 기원하였다.

#### 서울대학교에 팬톤 올해의 컬러 적용

노루페인트는 서울대학교 신공학관에 팬톤 올해의 컬러인 'PANTONE 16-1546 리빙 코랄(Living Coral)'을 적용하였다. 산호초의 색인 리빙 코랄은 마치 황금빛 태양을 듬뿍 받은 듯한 밝은 주황으로, 따뜻함과 편안한 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활동성을 자극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적극적인 교감을 이끌어낸다. 온라인의 활발한 소셜 네트워킹이 오프라인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현 시점에 리빙 코랄은 연결과 물입의 경험을 전달한다. 또한 산호초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여 급속히 훼손되고 있는 지구 환경에 대한 경각

심을 일깨운다.

이번 리빙 코랄은 2015년 마르살라 컬러 적용에 이어 다섯 번째로 적용한 것으로, 2층면에 2018년 컬러를, 1층면에 올해의 컬러를 적용하여 두 가지 컬러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또한 해당 벽면에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컬러에 대한 내용과 함께 노루페인트와 팬톤을 소개하여 이용자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서울대학교 신공학관 입구 정면 벽면은 매년 팬톤 올해의 컬러가 적용됨으로써 노루페인트의 컬러 감각은 물론 컬러의 효과를 전하는 홍보 면으로 운영되고 있다.

#### 2019 『COVER ALL』 컬러북 출시

노루페인트는 신규 컬러를 적용한 『COVER ALL』 페인트 컬러북을 출시하여 전국 페인트 대리점에 배포했다. 새롭게 출시한 『COVER ALL』 컬러북은 연도별로 인기 있었던 다양한 컬러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총 1,512 컬러로 정리하였으며 디자이너와 도장 전문가, 일반 소비자가 각자 원하는 컬러를 쉽고 빠르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컬러북의 색상 분류는 주조색으로 활용되는 밝은 톤의 색상들인 Off White(WT), 그레이 계열로 밝고 어두운 명암 단계를 표현하

# NEWS BRIEFING

## 뉴스 브리핑



2019 「COVER ALL」 컬러북 출시



농업회사법인 (주)더기반,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 교사 연수 진행



태국 투자청 · 기업 방한단 더기반 연구단지 방문



2019년 정월대보름 윷놀이

는 Monochrome, 저채도의 색상 차이를 보여주는 Chic Neutral & Accent Neutral, Neutral에 비해 높은 채도로 밝고 온화한 느낌의 Moderate Feather/Punch, 명도와 채도가 높아 선명하고 화사한 Bright Crush, 고채도 그룹으로 원색에 가까운 Vivid Surprise, 저 채도의 짙은 혼합색이 전반적으로 중후한 느낌을 주는 Deep Black 등으로 분류하여 다양한 분위기의 페인트 컬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 활용도를 높였다.

노루페인트는 지난 2011년 글로벌 색채 표준을 제시하는 팬톤사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여 팬톤의 2,300 컬러를 페인트로 생산해내고 있다. 팬톤이 요구하는 엄격한 컬러 구현 능력을 갖춘 유일한 업체로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소비자들이 원하는 컬러를 페인트로 정확하게 표현하여 탁월한 결과물을 보여준다.

노루페인트 관계자는 “도시 건축물 및 인테리어의 컬러를 선정할 때 노루페인트의 컬러 구현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작한 「COVER ALL」 컬러북은 뛰어난 활용도를 보여줄 것이다. 또한 노루페인트 대리점을 통해 정확한 컬러의 페인트를 제공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농업회사법인 (주)더기반

####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 교사 연수 진행

지난 2월 19일, 더기반은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의 교사 연수 단을 안성 연구단지에 맞이하여 농생명 산업에 대한 연수를 제공하였다.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는 1951년 설립되어 전라북도 농업 교육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2017년에는 특성화고인 현재의 마이스터고등학교로 개교하여 종자산업, 첨단시설 등의 학과에서 미래 농생명 산업의 일꾼을 육성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교사들이 농생명 산업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여 학생들에게 좀더 맞춤화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연수에 참가한 교사들은 2박 3일의 일정 속에서 시설을 견학하고 재배 하우스 내에서 교배 작업을 진행하는 등 실무를 체험했다. 교사들은 연수를 마치며 “짧은 기간이었지만 농생명 산업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이 산업에 얼마나 많은 땀과 노력이 필요한지도 알 수 있었다. 향후 학생들을 지도할 때 현장 맞춤형 실무 능력을 갖추고, 미래를 이끌어가는 인재가 되도록 교육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태국 투자청 · 기업 방한단 더기반 연구단지 방문

태국 투자청과 기업의 관계자들로 이루어진 방한단이 2월 26일 더기반 안성 연구단지를 방문했다. 더기반은 2018년에 태국 치앙마이에 현지 법인 연구소를 설립하여 활발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태국 투자청 · 기업 방한단은 선진 기업의 기술을 벤치마킹하고자 이번 방문을 기획하였다. 태국 투자청 · 기업 방한단은 더기반의 설립 과정과 목표, 성장 동력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듣고 생명공학센터, 종자기공센터, 재배 하우스 등 연구단지의 구석구석을 견학한 후 “인상 깊은 견학이었다.”, “더기반의 성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라고 전했다. 또한 치앙마이 현지에 연구소를 설립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을 남겼다.

더기반의 R&D 본부장은 “방문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치앙마이의 법인 연구소에도 더욱 많은 관심과 조력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더기반은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관을 확대하고 각 지역 발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2019년 정월대보름 윷놀이

지난 2월 19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더기반 안성 연구단지에서는 모든 임직원이 모여 윷놀이를 즐겼다. 정월대보름은 음력으로 따질 때 첫

보름달이 또는 달로, 농경을 기본으로 하였던 우리 문화에서는 설날 만큼이나 큰 의미를 가진다. 이 때문에 정월대보름에는 한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많은 세시풍속이 치러진다. 농생명 기업인 더기반은 한국 고유의 풍속을 잊고 회사의 발전과 직원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매해 정월대보름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역시 임직원들은 준비된 떡과 다과를 즐기며 자유로이 팀을 이뤄 윷놀이에 참여하여 정월대보름의 의미를 새길 수 있었다.

# 미세먼지 속 효과적인 청소법



미세먼지 농도 높은 날, 환기를 할까? 말까?

→ 잠깐씩 주기적 환기

실내에는 미세먼지뿐 아니라 포름알데하이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라돈 등이 축적된다. 미세먼지 나쁨의 날 이더라도 주기적으로 1~3분 정도 자연환기를 해야 한다. 특히 요리를 할 때는 조금이라도 창문을 열고, 주방 레인지후드를 작동시킨다. 요리 후에도 최소 30분 동안 레인지후드를 켜두는 것이 좋다. 참고로, 전기 레인지는 가스레인지보다 주방의 이산화질소를 60% 이상 감소시킨다.

진공청소기와 물걸레질, 뭐가 낫지?

→ 물걸레질이 최고

진공청소기를 돌리면 청소 전보다 공기 중의 미세먼지 수치가 높게 나온다. 바닥에 가라앉았던 먼지가 청소기 바람에 분산되고, 필터 사이로 빠져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먼지는 분명 걸러지므로 아예 청소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당연히 진공청소기라도 꾸준히 청소하는 게 나으며, 가능한 헤파필터가 장착된 청소기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물걸레질이다. 밀대를 이용한 물걸레 청소는 진공청소기보다 미세먼지 제거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분무기로 하공에 물을 뿌린 후 걸레질을 하는 것도 좋다. 물방울이 공기 중의 미세먼지와 결합해 바닥으로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벽과 천장도 청소해야 할까?

→ 주기적으로 청소

미세먼지 및 오염물질은 벽면과 천장에도 붙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청소 대상이다. 청소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해야 효과가 있으므로 대청소 시 벽과 천장을 가장 먼저 청소하자. 커튼과 창문도 이때 함께 청소한다. 커튼에 분무질을 하고 페트병에 스타킹을 씌워 쓸어내린다. 창문의 방충망에는 가볍게 적신 신문지를 붙이고 30분 뒤 떼어낸다.

햇살이 점점 강해지는 봄이 오면, 집 안의 먼지도 더 눈에 띈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청소를 하자니 집 밖의 미세먼지가 두렵고 문을 닫고 청소를 하자니 쌓인 먼지들이 날려 괴로운 때, 과연 어떻게 청소를 해야 집 안 먼지와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까?



2019 노루페인트 VIP 특약점 세미나가 열린 롯데호텔 제주 그랜드볼룸 입구에서 특약점주님들의 촬영이 있었습니다. 도약의 글자처럼 힘찬 포즈로 촬영에 임해 주신 특약점주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을지로에 문을 연 하우홈 인테리어 매장의 환한 모습입니다. 컬러 인테리어는 물론, 생활 시공 서비스로까지 확대된 하우홈 인테리어는 이 매장을 통해 컬러의 아름다움과 생활의 편리함을 더 많은 고객께 전할 예정입니다.



NOROO 그룹 사보 | 통권 50호(비매품)

종별 : 정보간행물(계간) • 등록번호 : 안양 바00022 • 등록연월일 : 2019년 3월 15일 • 발행일 : 2019년 4월 5일 • 발행처 : (주)노루홀딩스  
발행인 : 김동환 • 편집인 : 조용걸 • 기획 및 디자인 : (주)리커뮤니케이션, (주)노루로지넷 • 사진 : URL 스튜디오 • 인쇄 : (주)대한프린터  
발행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51 • 문의 : 02-2191-7700